

#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1995. 12.

김 도 태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차 재 훈 (정책연구실 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 서 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로 말미암아 현재의 남북한 사이에는 경쟁과 대결상황을 대체할 화해와 협력관계 형성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념적 갈등과 군사적 대립으로 대표되던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더이상 동서냉전의 구시대적 산물로 남아 있을 수 없으며, 남북관계는 새로이 협력관계 정착이라는 발전적 목표를 지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는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대화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래 수행되어 온 남북한간 대화는 경쟁과 대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이며, 타협과 문제해결의 양상을 갖지 못하였다. 남북대화가 이러한 양상을 보인 원인은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에 입각하여 대화를 수단화한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북한의 비타협적 대화방식에 따라 남북대화는 긴장의 연장선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제로 남북대화 활성화를 위한 북한의 대화자세 변화 유도과 우리의 대응방안 마련이라는 당면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북한 협상태도 연구의 필요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설정이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본 연구는 북한의 협상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북한 협상전술의 특징과 변화 양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과제로 제기한 문제는 북한이 사용하는 협상전술이 어떠한 원칙하에 선택되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연구방향은 북한 협상의 목적과 원칙 등 협상의 배경 요인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는 바, 이는 협상전술이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비정형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전술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선택된 대안이었다.

남북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특정 사례별로 이루어져 왔는 바,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북한의 일반적 협상전술을 충분히 연구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반면 다양하게 추진된 남북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는 연구방법과 깊이에서 부족한 면이 있으나, 북한이 사용한 협상전술의 특성과 변화를 일견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이에 향후 북한 협상행태의 추가적인 연구와 실제적인 남북대화 추진에 있어서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995. 12

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

# 요 약

본 연구는 남북대화에서 나타나는 북한 협상전술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협상전술 분석결과 북한은 공세와 방어의 대화유형 구분에 따라 전술형태상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며, 대화의 단계별 진행상황에 따라 전술이 달리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방안도 남북대화의 유형과 단계별 추진상황에 상응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기본방향과 세부방안을 제시하였다.

## 1. 서 론

본 연구는 “북한이 협상과정에서 사용하는 협상전술이 어떠한 원칙하에 선택되고 있으며, 협상전술 변화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 초점을 두고자한다. 협상전술은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비정형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상전술이 어떠한 목적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수행되는가 하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술의 유형화와 일반화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협상전술의 개념 정의 및 사례 연구

협상목적에 따라 협상자의 태도를 결정짓는 기본방침을 협상전

략이라고 한다면, 협상전술의 개념은 협상전략의 세부수단 혹은 기술로서 협상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가치중립적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협상전술은 협상상황의 변화에 따라 항상 새롭게 선택되어야 한다.

한편 협상전략은 협상의 목적에 따라 공세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협상전술의 선택도 위의 두 유형 범주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한다.

협상전략 유형에 따른 전술분석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협상전술의 시간적 진행과정을 또하나의 협상전술 분석구조로 이해하도록 하고, 시기별 구분은 준비기, 진행기, 종결기로 구분하도록 한다. 준비기에서 다루게 되는 협상내용은 협상의 원칙이나 규칙에 대한 논의이며, 진행기에서는 협상자 상호간 협상의제에 대한 절충과 타협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의제전환과정이 주된 협상구조로서 연구분석의 대상이 된다. 종결기에서는 협상자 상호간 합의도출 시도나 혹은 합의후 이행에 필요한 새로운 협상절차가 발생한다.

### 3. 북한의 남북대화 참여배경과 전략적 입장

각각의 남북대화 사례에서 북한의 입장은 서로 달랐던 바, 북한이 남북대화에 참여한 이유는 대체로 두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그들의 체제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운데 남한의 실력을 점검하거나 남한의 체제 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였으며, 둘째로는 대화시점의 시대적 상황이 그들의 체제안전에 부

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남북대화를 진행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회담의 성격은 공세적이었으며, 후자의 경우 회담의 성격이 방어적이었음은 쉽게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회담의 전략적 유형 구분을 실제사례와 연결시켜 본다면 전자의 공세적 회담 사례로는 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의, 1979년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재개 경우, 경제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사례를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 방어적 회담 사례로는 LA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로잔느 체육회담, 1989년 북경아시안게임 대비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등을 들 수 있다.

#### 4. 공세적 회담에서의 협상전술

북한의 공세적 회담에서 나타나는 전술적 특성을 단계별 진행에 따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준비기에 사용된 협상전술의 특징으로는 당위적 내용의 강조, 회담의 규칙 결정 이전 지나치게 구체적인 협상의제 주장, 모호하고 포괄적인 의제 제시 전술, 의제 외적 제안 제기 및 추가제안 제시, 의제들간 연계전술, 상대무시 등의 자극적 용어 사용 등이 있다. 이러한 전술들을 통해 정리해 볼 수 있는 준비기의 특성은 북한이 회담내용과 거리가 먼 제안을 제시하여 대화진행보다는 선전차원에 더 관심을 두거나, 회담의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하에 대화진행을 방해한



다는 점, 그리고 회담의 분위기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과격할 방법까지 사용한다는 사실 등이다.

한편 진행기에 사용되는 북한의 전술사례로는 남한의 협상환경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선결조건 제시 전술, 건포도 뽑아먹기 전술 및 살라미 전술, 회담 비협조, 최초제안의 불양보, 발언권 독점, 일방적으로 설정한 원칙의 합의 요구 및 거짓양보 전술을 통해 남한의 협상공간 제약 시도, 합의와 이행의 분리, 합의기피나 합의사항 무시, 거짓정보 제공, 고의적 상대무시, 합의 내용의 이중적 해석, 양보 및 타협 거부 등이 각 회담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술의 특징은 북한 스스로가 협상진전에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 인하여 협상의 일반적 양상인 상호 타협과 양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남한만의 의제전환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또한 협상을 통해 남한의 능력과 대북태도를 평가하려는 협상외적 목적에 비중을 두는 것도 진행기 특성의 하나가 된다.

종결기의 협상전술은 비타협과 협상중단 불사양의 강경전술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 사용한 협상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바, 북한은 합의기피와 합의이행 거부, 상대무시, 타조건과의 연계시도 등의 전술을 통해 회담진전을 방해하고 회담중단을 유도한다. 또한 회담재개 조건과 연계시킨 최종대안 제시 전술, 양보없는 제안의 반복전술, 불합리한 해석을 통한 이의제기, 새로운 의제추가 전술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술들은 남한에 회담중단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선택되는 전술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종결기 협상전술은 대남전략의 목적

하에 향후 재개될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기존 협상을 새로운 협상과 단절하는 상황형성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앞에서 살펴 본 북한의 공세적 협상에서의 협상전술은 단계별로 형태적 차이를 나타내나, 대남전략 수단이라는 협상외적 목적 측면에서는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협상전술이 남북대화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 공세전술 중심으로 선택되는 이유는 북한의 협상이익이 남한과의 합의성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 5. 방어적 회담에서의 협상전술

북한이 방어적 회담에서 사용하는 전술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준비기의 전술에서는 협상성사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중심적 성격을 찾아 볼 수 있다. 협상의제의 선제의나 단계적으로 의제 절충안을 수용하는 전술 등에서 볼 때 북한은 회담 진행을 위한 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공세적 협상에서와는 다른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 무리한 제안이나 요구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강화하는 일방적이고도 비타협적인 회담환경 유도전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공세적인 전술에서와 유사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진행기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협상전술 역시 대화진행과 관련된 타협전술이 대화진전에 장애가 되는 공격적 전술과 함께 뒤섞여 다양성을 보인다. 이러한 진행기 협상전술은 세가지 형태로 분류

해 볼 수 있는 바, 첫째는 일반원칙과 전제조건을 연계시키려는 시도 및 대의선전소재를 확보하려는 데 사용되는 공격적 전술 사례들이다. 둘째는 단계적 대안제시 전술이나, 의제중심적 대화태도 선택, 의제추가 제시, 그리고 먼저 회담을 중단하기를 꺼리는 회담진행 동조적 전술 등으로, 이는 앞의 전술 성격과 상반된다. 셋째는 교착위협전술, 거짓양보전술, 이의제기 전술 등이 포함되는 효율성 제고 목적의 전술 사례들로 공세와 방어의 양 유형에 공히 사용되는 전술이다. 결국 이러한 진행기 협상전술은 공세적 협상의 전형을 유지하면서도 협상단계별로는 필요한 협상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어적 협상에 상응하는 양면적 특징을 갖는다.

북한이 추진하는 방어적 협상의 종결기 전술도 대체로 상반된 두 방향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협상목적과 관련해 회담의 진행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 회담을 중단시키기 위한 구실로 무리한 회담재개 요구나 회담교착 위협 전술을 사용하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남한의 협상자세가 적극적인 경우 새로운 의제 추가 제의나 일반원칙 합의 시도를 통해 남한과의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방어적 협상의 특징은 공세적 협상에서와 달리 의제진행을 위한 실리적 대화전술과 비타협적·비협조적 공격전술이 병행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대화진행의 전체구도에서는 협상목적에 따라 실리적 측면을 중시하나, 세부 단계별로는 경쟁적 대담협상에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비타협과 비협조의 공격적 전술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6. 북한 협상전술 평가 및 우리의 대책

### 가. 북한 협상전술 평가

북한의 공세적 협상전술은 하나의 목적하에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있는 바, 단계별로 분절없는 연결성을 갖고 있다. 즉 북한의 공세적 협상전술은 회담의적 목적을 위해 부정적인 방향에서 추진되는 일련의 전술 선택구조로 이해된다.

반면, 방어적 협상에서 북한협상전술은 각 단계별로 형태적인 면에서 선후의 분절적 연계성을 보인다. 이러한 전술선택의 형태적 특징은 북한이 단계별로 달리 설정하는 세부목적에 각각 부합하는 협상전술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방어적 협상에서 북한의 이러한 협상자세는 협상진행 상황에 대해 신속적 대응을 가능하게 해주므로, 그들에게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하에 최대한의 협상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세제로 북한의 협상은 형태적으로는 남한을 상대로 경쟁적 구조속에서 운영되나,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설정한 협상구조 내에서 일방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협상전술도 북한의 일방적 협상목적과 부합되도록 선택되며, 남한의 대응태도가 북한 협상전술 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결국 이러한 북한의 협상전술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선택하는 협상전술은 협상결과와 상관없이 북한협상 목적과 연관시켜 효용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북한의 협상추진 과정에서 협상전

술의 선택과 변화는 회담의 전략적 입장과 단계별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 나. 우리의 대책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은 전략적 입장과 단계별 진행 상황에 따라 전술선택의 다양성을 보여왔다. 따라서 우리의 대책도 북한의 협상전술 선택 원칙과 변화방향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협상전술 선택의 기본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대화배경과 관련, 대화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추진하는 남북대화가 대남공세전략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인가, 혹은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 협상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인가를 구별해야 한다.

둘째, 대화의 단계적 진행상황과 적절한 대응전술간 연계 필요성이다. 북한의 대화가 단계별로 운영되므로 대화의 지속성 유지는 가능하나 대화의 진전은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리의 대화전술도 단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 대화목적에 따른 일방적 '협상이의 중심의 대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의 대화전술도 상황에 적응하여 협상위치를 바꾸는 '상황중심의 협상'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방안은 기본방향의 범주안에서 북한 협상의 전략유형과 단계별 진행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을 고려하여 마련하도록 한다(세부방안 내용은 본문 참조 바람).

## 7. 결 론

북한의 협상전술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선택되며, 단계별 진행과정에서도 전술선택의 변화를 보인다. 특히 공세적 협상의 경우 고정적인 대남공세 목적에 따라 전술의 변화가 적으나, 방어적인 회담에서는 세부적인 단계별 목적에 따라 전술변화의 폭이 커지게 되는 협상을 추진한다. 또한 방어적 협상에서는 한반도의 대결적 분단체계 아래서 제한적 변화만을 보이는 바, 이는 대남경쟁 구조가 타협과 절충이라는 본질적 협상구조를 제한한 데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목 차

제 I 장 서 론 .....	1
제 II 장 협상전술의 개념 정의 및 사례 연구 .....	3
1. 협상전술의 개념 정의 .....	3
가. 협상전략의 개념과 유형 .....	3
나. 협상전술의 개념 및 전략과의 상관성 .....	4
2. 사례 연구 .....	6
가. 전략무기제한협상(SALT-I, II)과정에서 나타난 소련의 협상전술 .....	6
나. 국공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중공의 협상전술 .....	14
다. 파리평화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월맹의 협상전술 .....	20
라. 시사점 .....	23
3. 연구 분석틀 .....	26
제 III 장 북한의 남북대화 참여배경과 전략적 입장 .....	30
1. 남북대화 배경 .....	30
가. 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의 참여 배경 .....	31
나. 체육회담 참여 배경 .....	32
다. 남북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배경 .....	34

라. 적십자회담 및 경제회담 수락과 국회회담 개최제의 배경 .....	35
마.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시의 대화환경 .....	36
2. 북한의 전략적 입장 구분 .....	37
<b>제Ⅳ장 공세적 회담에서의 협상전술 .....</b>	<b>41</b>
1. 북한의 협상 진행과정 .....	41
가. 적십자회담 .....	41
나. 남북조절위원회의 .....	47
다.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대비 체육회담 .....	52
라.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	54
마. 적십자회담 재개상황 .....	57
바. 경제회담 .....	60
사. 남북 국회회담 예비접촉 .....	63
2. 단계별 협상전술 사례 .....	65
가. 준비기의 협상전술 .....	65
나. 진행기의 협상전술 .....	72
다. 종결기의 협상전술 .....	80
3. 공세적 회담에서의 북한협상전술 특성분석 .....	84
<b>제Ⅴ장 방어적 회담에서의 협상전술 .....</b>	<b>89</b>
1. 북한의 협상진행 과정 .....	89
가.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	89



나. 로잔느 체육회담 .....	91
다.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	94
라. 남북고위급회담 .....	97
2. 단계별 협상전술 사례 .....	103
가. 준비기의 협상전술 .....	103
나. 진행기의 협상전술 .....	105
다. 종결기의 협상전술 .....	110
3. 방어적 회담에서의 협상전술 특성분석 .....	113
<b>제Ⅵ장 북한 협상전술 평가 및 우리의 대책 .....</b>	<b>117</b>
1. 북한 협상전술 평가 .....	117
2. 우리의 대책 .....	119
가. 기본방향 .....	119
나. 세부방안 .....	122
<b>제Ⅶ장 결    론 .....</b>	<b>128</b>
<b>참고문헌 .....</b>	<b>131</b>

# 표 목 차

<표 1> 협상전략 유형과 협상 단계의 상관성 .....	28
<표 2> 북한협상 사례의 전략적 구분 .....	40
<표 3> 전략적 입장과 협상 단계에 따른 북한협상전술의 변화 상관성 .....	120

## 제 I 장 서 론

북한에게 있어 협상은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간 경쟁을 위한 투쟁수단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다. 즉 북한의 협상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치중립적인 대결방법으로 군사력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sup>1)</sup> 따라서 북한의 국가목표로서의 「남조선 해방」과 「전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북한이 수행하는 남북한간 대화의 목적으로도 설정됨으로써 북한 협상전략의 변화가능성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협상의 의제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으며, 궁극적인 대화목적은 협상 이전에 이미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과거 북한이 추진해 온 협상은 상위개념으로서의 협상목적이나 협상전략 차원에서는 그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북한의 협상실태 변화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리 선택되고 수행되는 협상전술에 대한 접근과 분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 한국사회에서 추진되어 온 북한의 협상행태 연구는 협상전략과 목적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정태적이고 획일적인 설명으로 귀결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협상의 동태적인 변화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부적절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협상

1) 협상의 보편적 개념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리력(군사력)의 대체개념이거나, 협상자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는 목적론적 도덕개념으로 이해된다.

행태에 관해 보다 동태적인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이 사용하는 협상전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한편 협상전술은 상황적 변화에 대응하여 비정형의 특성을 갖고 있는 바, 이를 대상으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북한 협상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과 남북대화 실무자들은 역사·기술적인 접근을 통해 수평적이고 나열적인 연구결과만을 양산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들은 북한협상의 현상적 이해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나, 전술의 효용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미 발표된 제 분석들은 협상전술이 선택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이 진행될 남북대화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북한 협상전술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구결과를 남북한간 대화에 원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 측면을 제고한다는 목적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협상전술이 어떠한 목적과 원칙에 따라 설정되고 수행되는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협상전술의 일반화·유형화 노력을 시도하도록 한다. 연구진행을 위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도록 한다.

연구문제: 북한이 협상과정에서 사용하는 협상전술은 어떠한 원칙하에 선택되고 있으며, 협상전술 변화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 제Ⅱ장 협상전술의 개념 정의 및 사례 연구

### 1. 협상전술의 개념 정의

#### 가. 협상전략의 개념과 유형

전략이란 복잡한 가치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하위개념이므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기는 어렵다. 다만 구체적 목적을 통한 제한적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목적과 결부시켜 합의되고 있는 전략의 개념은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정책이 설정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sup>1)</sup>

협상전략의 개념은 접근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sup>2)</sup> 보편적으로 협상목적에 따라 협상자의 협상태도를 결정짓는 기본방침을 기준으로 이해하게 된다. 즉 협상전략은 협상자가 협상진행과정에서 협상목적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수동적 성격의 이정표로 기능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협상상대를 압박하는 능동적 수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전략은 협상배경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목적과 함께 공격적인 방향과 방어적인 방향사이에서 변화하

1) 전용, 「외교정책론」 (서울: 법문사, 1989), p. 228.

2) Wall Jr.에 따르면 협상전략은 “협상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획득해 내기 위해 선택되는 광범위한 계획 혹은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James A. Wall Jr, *Negotiations: Theory and Practice* (Glenview,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5), p. 35.

게 된다.

협상전략의 유형도 협상목적에 따라 구분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격과 방어라는 전략목표의 양극점 사이에서 협상목적을 대상으로 이분법적 접근을 한다면 공세적 전략, 방어적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3)</sup> 공세적 전략은 상대의 협상상황이나 협상위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반면, 방어적 전략은 아측의 상황을 유리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4)</sup>

#### 나. 협상전술의 개념 및 전략과의 상관성

협상전술은 협상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5)</sup> 즉 협상전략은 협상목적적 성격을 갖는 데 비하여 협상전술

3) 공세와 방어라는 이분법적 전략구분은 군사적 전략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상호 중복이 불가능한 양극점을 설정하는 전략의 기본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전웅, 「외교정책론」, pp. 239~240 참조; 전략의 유형을 경쟁(Contending)전략과 양보(Yielding)전략, 그리고 문제해결(Problem Solving)전략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D. Pruitt도 경쟁전략과 문제해결 전략의 상반성을 두전략 사이의 '덜레머'로 표현하여 특별한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D. Pruitt, "Strategy in Negotiation," Victor A. Kremenjuk, *International Negotiation* (California: Jossey-Bass Inc., Publishers, 1991), pp. 78~79. 참조.

4)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양자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전략이라기 보다는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불가분의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협상의 상황에 따라 공세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은 그 기능을 바꾸어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며, 그 전환과정은 항상 상호연장선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세적 협상전략과 방어적 협상전략의 구분은 협상상황과 협상진행 단계에 따라 협상자의 태도에 의해 바뀔 수 있게 된다. 전웅, 위의 책, p. 239 참조.

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기술 혹은 수단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협상전술은 효과적인 협상진행을 위해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항상 새롭게 선택되어야 하며,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구조를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전술의 개념은 협상 목적과 전략 달성에 이용되는 전략의 하위개념으로 철저히 가치중립적인 임의선택 대상이 된다. 따라서 협상전술은 전략의 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하게 되며, 도덕성이나 공격성과 같은 가치체계는 무시된다. 즉 협상자는 방어적 전략하에서 공격적 전술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결국 협상전술은 협상자의 태도에 의한 임의적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며, 효율성과 효과만이 전술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면 협상자의 전술선택은 아측이 유리한 측면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반면, 불리한 측면을 회피하므로써 목적 달성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결론적으로 협상 진행과정에서 협상자의 협상전술 선택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게 되므로, 협상상대의 전술 선택과정에 대한 이해 및 분석만이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협상전술 선택 유형의 일반화는 가능하지 않으나, 회담의 목적과 회담 과정의 진행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나타나는 협상자의 협상 태도 중심의 전술선택은 분석이 가능하다.

---

5) J.A. Wall Jr.는 “전술의 개념을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세분화된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James A. Wall Jr., *Negotiation: Theory and Practice*, p. 35.

## 2. 사례 연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상전술은 협상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협상전술 선택에 대한 유형화와 일반화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소련·중국·월맹 등 공산국가의 협상사례를 통해 회담 배경과 진행상황을 봄으로써 전술선택 과정에 대한 이해 및 협상태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가. 전략무기제한협상(SALT-I, II)과정에서 나타난 소련의 협상 전술

1960년대 말 미·소간에 전략무기제한협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첫째, 데탕트로 인해 전략무기를 제한 할 수 있는 신뢰 구축과 전략균형이라는 정치적 환경 변화가 기반이 되었다.<sup>6)</sup> 둘째, 미국 핵억지전략의 변화가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했다.<sup>7)</sup>

- 
- 6) 전략무기제한협상(SALT-I)은 군축협상이 아닌 전략무기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는 수적제한협상이었다. 따라서 전략유지에 치명적인 약점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호합의에 의해 균형점을 찾고, 합의와 검증이 가능한 수적제한 만을 목적으로 하는 협상을 이뤄낼 수 있었다. 특히, 소련은 전략무기에 대한 상한선을 갖는 것이 자국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제한협상을 통해 미국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April Carter, *Success and Failure in Arms Control Negotiations*, SIPRI.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105~106.
- 7) 즉, 핵우위를 지향한 케네디 행정부의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과는 달리 69년에 등장한 닉슨 행정부는 미·소간의 핵균형으로 전면 핵전쟁의 상호억지체계가 확립됐다고 인식하고, 양국간 핵력의



1969년 11월 양국정상회담을 통해 미·소 양측은 대등성원칙에 입각하여 공격용전략무기제한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ABM)’의 배치를 제한하는 전략무기제한협상(SALT-I)을 개시하였다. 미·소 간의 전략무기제한협상은 협상의제를 정하는 초기협상부터 전략무기체계의 비대칭적구조와 방어지역 설정 등 난해한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었다.<sup>8)</sup> 따라서 협상초기 가장 논란이 된 쟁점은 ‘전략적무기’에 대한 정의문제였다.

SALT-I은 미·소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공격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경쟁을 제한한 한 미·소간의 쌍무협정이었다. 결국 SALT-I협상은 핵무기기술과 폭격기전력에 앞선 미국이 소련에게 더 많은 수의 전략공격용 미사일을 허용함으로써 헬싱키에서의 협상을 시발로 2년반 만인 1972년 5월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은 공격적 전략무기의 기술개발과 전략적 균형의 안정을 이루려는 제한된 목적만을 달

---

근소한 우위는 군사적으로 별의미가 없다 하여 우위보다는 충분개념에 입각한 ‘충분전략(Sufficiency Strategy)’으로 전환시켰다. 따라서 미국은 비용과 효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억지체제의 안정을 위협할 우려에서 ‘피해제한능력(damage limiting)’을 크게 높일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체계(ABM)’설치를 배제했으며, 소련에게도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W. W Kaufman, *The McNamara Strategy* (New York: Haper, 1964); 김상준, 「국제정치이론 II」 (서울: 삼영사, 1982), pp. 127~130.

- 8) 전략무기체계의 구조와 기술개발 차이로 소련의 핵전력은 대형탄도미사일의 개발과 배치에 집중되어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에 있어서는 미국을 능가했다. 반면, 미국은 탄두수나 장거리폭격기 기술과 배치에서 앞서 있었다. 특히, 이러한 핵군사력의 비대칭 뿐만 아니라 방어지역범위와 동맹지역에 대한 군사공약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April Carter, *Success and Failure in Arms Control Negotiations*, pp. 116~118.

성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2단계 전략무기제한협상(SALT-II)을 필요로 하였다.

SALT-I협정의 제7조에서 미·소는 「전략공격무기에 대한 제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계속」하기로 공약함에 따라 1972년 11월 제2단계 전략무기제한협상(SALT-II)을 시작했다. 2단계 협상의 목적은 모든 전략무기체계에 제한을 가하는 장기적 협정을 체결하여 잠정협정인 SALT-I을 대체하자는 것이었다.<sup>9)</sup> 그러나 여전히 미·소 핵전력의 비대칭적 구조에서 오는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협상은 어려움을 겪었다.

2년간 교착상태에 있었던 SALT-II 협상은 1974년 11월 블라디보스톡에서 포드 대통령과 브레즈네프 서기장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타개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재개된 협상에서 미·소 양측은 전략핵 운반체(ICBM, SLBM, 중폭격기)의 종합상한선을 각각 2,400기로 제한할 것과 신형의 전략공격미사일 배치 금지를 제안했다. 결국, 1979년 6월 18일 비엔나에서 기본협정 이외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전략핵 운반체에 대한 상호간의 양해를 통해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소련은 전략무기제한협상(SALT-I, II)과정에서 미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던 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개발중이던 전략핵 운반체에 대한 공개화를 꺼려했다. 따라서 미국이

9) 미·소는 SALT-II협상의 초점을 무기체계의 범위, 미·소핵전력의 비대칭적 구조를 감안한 전략핵 운반체의 수적균형 문제, 전략무기의 질적 개발 제한, 동맹국에 전진배치한 무기체계(FBS)등에 두었다.

이 문제를 제안하자 협상과정에서 다양한 협상전술을 구사하여 자기쪽에 유리한 협상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상호간의 제안에 대해 양보를 함으로써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부분적인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 마다 협상은 교착에 빠졌으며, 합의와 무시, 재협상 등을 반복하는 분절적이고 정기적인 협상이 계속되었다.<sup>10)</sup>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소련의 주요 전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는 리토비노프식 전술<sup>11)</sup>:** 소련은 협상의제와 협상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부분의 양보를 하는것 처럼 보이기 위해 장황한 제안을 한뒤 거짓 양보를 하였으며, 먼저 제안하기 보다는 미국측의 구체적 제안에 대한 대응제안(리토비노프식전술)만을 방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10) 소련은 상황지향적인 특성에서 여러가지 협상전술을 사용했다. 따라서 기합의 사항을 무시하거나 새로운 협상을 요구하는 등 모든 협상교섭 수단을 사용하여 자기측 제안을 유리하게 하도록 노력하였다. 소련측이 사용한 전술은 서방측 외교협상자들과 유사점을 갖고 있으나, 서방측은 그러한 전술을 무분별하게 쓰는 데 비해 공산주의 협상자들은 보다 합목적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합의와 합의안 무시, 재협상을 시도함으로써 '분절적·정기적'인 협상을 시도했다; Louis J. Samelson, *Soviet and Chinese Negotiating Behavior: The Western View*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6), p. 27.

11) 스탈린시대의 소련 외무인민위원 막심 리토비노프가 잘쓰던 방법이라고 해서 유래되었다. 소련의 힘이나 입장이 상대방에 비해서 열등할 경우 소련은 강기를 보이지만 실제 협상에 있어서는 결코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려들지 않고 오직 상대방만이 먼저 제안하도록 하며, 자신의 협상 목표를 감추려한다는 것이다; Arthur Dean, *Test Ban and Disarmament: The Path of Negotiation* (New York: Harper & Row, 1966), p. 34; 통일원, 「공산주의 협상전술」 (서울: 국토통일원, 1983), pp. 62~64 참조.

이를 통해 상대의 합의가능범위를 견제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려 했다. SALT-I 협상 초기부터 미국은 구체적인 소련의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전략무기 제한의 내용과 수를 강조한 반면, 소련은 포괄적인 내용의 대응제안을 제시했다.<sup>12)</sup>

‘원칙으로서의 합의’ 전술: 소련은 협상환경을 전환시키기 위하여 ‘Agreement in Principle’ 혹은 ‘Approval in Principle’로 표현되는 제안을 자주 제시하였는데, 상대방은 소련의 이러한 원칙이나 일반적 협정에 동의 할 경우에는 협상주도권을 놓치기 쉽게 된다.<sup>13)</sup> 실제로 SALT-I협상에서 미국과 소련은 현존 수준에서 실전배치하였거나 건조중인 모든 지상고정식 ICBM과 SLBM을 합한 총수를 5년간 동결하도록 하는 제안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sup>14)</sup> 그

- 
- 12) 소련은 상대방의 본국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모든 무기체계는 “전략적무기”로 간주할 수 있다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개념합의를 제안함으로써 서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폭격기는 물론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기까지 제한하려 하였다; April Carter, *Success and Failure in Arms Control Negotiations*, p. 125; 소련의 협상행태에 관해서는 R. L. Garthoff, “Negotiating with the Russians: some lessons from SALT,” *International Security*, vol. 1, no. 4 spring (1977), pp. 131~140.
- 13) 비공산권 사람에게 있어 ‘원칙으로서의 합의’란 협상자는 대체로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시간을 들여 시행한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소련사람들에게 있어 합의는 반듯이 최종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협정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협상당사자들을 위해 협조적으로 노력한다는 일반적인 행동 지침에 불과 할 뿐이다. 특히, 모호한 표현을 통해 용어가 허용하는 범위까지 나름대로 해석하려 한다; A. Dean, *Test Ban and Disarmament*, pp. 45~46.
- 14) 이 기간에 미국은 1,054기의 실전 배치된 고정식 ICBM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건조중에 있는 것은 없었다. 반면, 소련은 이미 실전 배치된 것과 건조중인 ICBM을 포함하여 1,618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A. Carter, *Success and Failure in Arms Control Negotiation*, pp. 118~122.

러나 소련측은 동 제안이 내용상 소형 또는 구형의 ICBM발사기를 현대화된 대형발사기로 개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의적 해석을 통해 지상이동식 ICBM문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고압적인 뽀가자찌(NOKAZAMU)전술 및 연계전술(Linkage):** 소련은 상대측 제안을 거부하거나 협상의제의 전환을 목적으로 고압적인 위협과 제안의 연계를 시도했다. SALT-I 협상에서 소련은 SLBM발사기와 신형탄도미사일 발사잠수함의 수를 제한하려는 협상안 제3조와 '의정서(Protocol)'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성명을 통해 "NATO동맹국들이 동 제안 협상시의 수준을 넘어 그들의 현대식 잠수함을 증가시킬 경우 소련은 동협정에서 허용된 상한선을 넘어 미국의 동맹국들이 추가한 만큼의 잠수함과 발사기를 추가보유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상주도권을 잡으려고 상대에 대한 협박과 무리한 제안을 추가하려 한 전형적 사례였다.<sup>15)</sup>

**흥정전술(각자의 해석과 주장을 담으려는 전술, Trial Balloons):** 이 전술은 소련 뿐만 아니라 각 협상국이 협상종결시

15) 협상주도권을 잡기위해 소련이 자주 이용한 전술로는 「고압적 뽀가자찌(NOKAZAMU)」와 「바자르(Bazaar)」전술 등이 있다. 「바자르(Bazaar)」란 자신이 얻고자 하는 협상목표 보다 더 무리한 제안을 통해 적절한 협상이익을 확보하려는 전술이다; Louis J. Samelson, *Soviet and Chinese Negotiating Behavior: The Western View*, pp. 24~28; Garthoff, "Negotiating with the Russians: Some Lessons From SALT," p. 184.

협상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고 있는 전술이다. 즉, 협상에 응하여 협상이익이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결렬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의도적으로 복수의 해석을 허용하는 협정조문을 만들어 협상당사국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특히 국내선전용으로) 만족을 얻으려 할 때 쓰는 전술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내적인 선전에 이용하기도 하며, 대외적으로도 협상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뀔 경우 당시의 타협을 무시할 구실을 남겨두자는 것이다.

소련은 ABM협상 종결시 내륙지향성 단계별 배열의 조기경보 레이다망과 ABM발사기의 다탄두화 등 ABM기술의 질적향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됨으로 인하여 불리한 타협을 해야 할 상황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측에 이중해석 협정안의 형태로 ABM조약과 부속문서인 “합의된 해석문서(The Agreed Interpretations)”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결국, 소련측의 흥정전술에 따라 이중해석을 담은 협정안이 체결되었고 후일 또 다른 협상을 필요로하게 되었다.<sup>16)</sup>

16) 즉, 조약 제2조와 “합의된 해석문서”의 D항은 ABM체계를 정의함에 요격미사일, 발사기, 레이다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고, ‘물리적 원리’에 입각한 ABM체계만을 제한 대상으로 함으로써 물리적원리가 아닌 고에너지 광선이나, 광학 감도기 등을 이용한 원격 계측기의 개발·실험·배치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Bhupendra Jasani, “The Military Use of Outer Space,” SIPRI,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 SIPRI Yearbook 1984* (London and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1984), p. 357; 김관봉 외, 「미·소군축과 동북아」 (서울: 평화연구소, 1990), pp. 26~28.

**‘테이크 앤드 테이크’ 전술:** 소련측 협상자들은 상대방측 사정을 보지 않는다. 특히, 서방측과 같은 ‘기부 앤드 테이크’ 원칙이 없고 ‘테이크 앤드 테이크’만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상호 호혜적인 쌍무협상에서도 ‘기부 앤드 기부’만을 요구한다. 제2단계 전략무기제한협상(SALT-II)에서 미국은 SALT-I 협상을 통해 소련보다 불리한 상한선을 배정받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수의 시정과, 양자간 전략적 안정을 위협하는 ICBM 운반체의 감축을 포함하는 전략무기의 질적 개발 지양을 제안했다. 그러나 소련은 미국을 포함하여 서유럽 동맹국들이 보유한 중거리미사일과 폭격기문제 등 새로운 의제를 추가하거나 비대칭적 구조 문제를 계속 주장함으로써 미국측 제안을 거부하였고 협상을 교착에 빠뜨렸다.

**교착위협 전술(BATNA 혹은 Take it or Leave it):** 소련과의 교섭에서 선의, 호의, 우정같은 것은 협상타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소련은 자신의 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결렬을 담보로 하는 교착위협전술을 사용하였다. SALT-II 협상에서 미국은 전략핵 운반체 제한 대상을 놓고 소련이 실전배치한 신형중폭격기 Tu-22M(Backfire기)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대신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발·재배치하고 있는 다목적 순항미사일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함으로써 협상을 교착시키려 했다. 1977년 카터행정부가 전략무기의 상한선을 감축하고 무기의 질적 개발을 더욱 제한하려는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게 되자, 소련은 전략 비대칭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여 협상을 교착시켰다. 소련측은 협상결렬을 위협하면서 미·소간 논쟁이 된 신형 중폭격기에 대해 별도의 의정서나 양해각서를 위한 협상을 요구했고, Tu-22M 문제는 결국 미국측의 양보로 해결되었다.<sup>17)</sup>

#### 나. 국공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중공의 협상전술

1차 국공합작 이후 제2의 장정을 모면하고 중공의 소생·발전 방법을 궁리하던 모택동은 확대일로에 있던 일본침략을 규탄함으로써 국공간 전쟁을 중지하고 대일 항전을 위한 양당 합세를 모색하였다. 이에 국·공 양당간에 1940년 7월부터 1946년 11월까지 7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대체적으로 1~3차 까지의 협상은 군대배치와 정전을 위한 군사협상이었으며, 4차이후 협상은 미국의 직접적인 중재에 의해 중국의 화평건국을 도모하는 정치협상이었다. 중공은 4차 이후의 협상에서 대·내외적 상황 전환의 계기를 모색하기 위해 신민주주의 이론에 의한 연합정부 수립, 자율권 보장 등을 표방함으로써 미국의 착각을 유도하여 미국의 중립화를 꾀하고, 국민당 정부와

---

17) 소련측은 논쟁이 된 신형 중폭격기 Tu-22M(Backfire기)에 대해서 별도의 의정서나 양해각서를 위한 협상을 요구했다. 결국, 1979년 6월 18일 비엔나에서 기본협정 이외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이 폭격기가 미국 영토내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비행능력을 결코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잠정 해결되었다; 교착위협 전술에 관해서는 D. Churchman, *Negotiation Tactics*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3), p. 25



미국간의 이간을 조장하여 국민당 정부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일관하였다.<sup>18)</sup>

중공의 협상전술이 잘 나타난 국공협상의 경우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타파하고 전세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협상내용 보다는 형식적인 협상진행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일반원칙에 대한 합의와 합의안 위약, 재협상 등 분절적인 협상과정이 계속되었다. 즉, 중요 사안에 대한 예비접촉 과정과 일반원칙에 대한 합의가 다음에 열릴 협상의 합의기초에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본 회담시 새로이 추가된 제안에 대한 또 다른 일반원칙 합의를 요구함으로써 끊임없는 회담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중국 의 협상은 ‘불연속의 연속성(“Linear” or sequential process of relatively discrete stages)’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협상 단계별 목적에 따라 전술이 선택적으로 달리 사용되었다.<sup>19)</sup>

앞서 본 소련의 경우와 같이 중공도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이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전술을 시도하였는 바, 협상전술의 특징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상환경 조작(Venue)과 ‘원칙으로서의 합의’ 전술:** 중공은 불리한 환경에서의 협상을 피함과 동시에 자신의 협상목표를 감

18) 정석홍, 「국공협상」 해외협상경험사례 (서울: 국토통일원, 1987), pp. 7~16.

19) Richard H. Solomon, “Chinese Political Negotiating Behavior: A Briefing Analysis,” *RAND Publication Series 3295*, December (1985), pp. v~vi.

추려 하였다. 따라서 협상을 단선적으로 진행시키기 보다는 분절적인 협상을 시도했다.<sup>20)</sup> 가령 1~3차 국·공협상시 중공군 사단 배열 문제 등 협상에서 불리한 군사적 제안이 논의되자 협상상대와의 친분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거나 유연한 협상환경을 조성하려 하였다. 중공은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환경이 조성되면 주요 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루려고 했다. 한편 새로운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후속회담을 지연시켰는데,<sup>21)</sup> 협상지연을 통해 중공은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개되는 추가협상에서 보다 용이하게 협상주도권 및 협상 목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중공의 협상전술은 상황대응식 전술이면서도 합목적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거짓양보 전술(Face Saving):** 중공측은 협상의 기본목표나 이익을 손상시킬 만한 양보는 절대 하지 않았다. 다만 커다란 성과

20) Richard H. Solomon, "Chinese Political Negotiating Behavior : A Briefing Analysis," pp. 3~4; 협상환경 조작 등 전술에 관해서는 David Churchman, *Negotiation Tactics*, p. 50.

21) 1971년 미·중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예비협상 당시에도 중국측은 자국에 대해 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Henry Kissinger(당시 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를 닉슨 대통령에게 협상 대표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1972년 2월 중국측은 미국에 대해 유연한 협상자세를 보임으로써 양국간의 일반원칙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였고 마침내 닉슨 대통령과 주은래 사이에 '상해코뮤니케'를 만들었다. 이후 중국은 이 문안을 근거로 1978년까지 미국의 대 대만관계 청산과 중국의 이익 확보를 위한 국교정상화협상을 이끌었다; Richard H. Solomon, "Chinese Political Negotiating Behavior : A Briefing Analysis," pp. 6~7; 국·공협상에 대해서는 김준엽, 「남북협상과 국공협상의 비교에 의한 우리의 대책」 (서울: 국토통일원, 1972), pp. 23~24.

가 기대되는 한에서 잠정적으로 사소한 양보를 하였으며, 그 대가로 상대측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2차협상(1943.3)과 3차협상(1944.5~6)에서 국부측은 중공측이 기합의한 1차 협정안 준수가 기본적인 문제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중공측은 1차 협정안 이행 조건과 당면 문제에 따른 긴급제의 명목으로 중공의 합법적 지위인정과 변방행정구 개편 등 새로운 정치적 전제조건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회담결렬의 책임을 국부측에 전가하려 하였다.<sup>22)</sup>

**주요문제 고수전술:** 정치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모택동의 무력제일주의에 입각, 군사적 문제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계속 확대·주장하였다. 7차 국공협상(1946.1~11)은 양자간의 전쟁행위 중지와 군사이동 중지, 정전감시반조직 등 단계적 군축정비문제를 다루기 위해 정전회담(4차례)형식으로 열렸다. 그러나 중공측은 군사적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교섭 전제조건으로 각당파 인사 흡수와, 동북의 민주연합국 승인 등 정전협정과 상반된 무리한 정치적 전제조건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군사적 주요문제는 일체 양보치 않고 상대 양보만을 요구하였다.<sup>23)</sup>

22) 김준엽, 「남북협상과 국공협상의 비교에 의한 우리의 대책」, pp. 24~26; David Churchman, *Negotiation Tactics*, p. 28.

23) 이러한 군사적 문제의 고수로 중공은 1937년 국공협상초기 3개사단 병력에 대한 보유 합법화를 요구 했다가, 43년에는 12개사단, 44년에는 16개사단, 45년에는 48개사단 보유 인정 등 새로운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 따라서 중공군 병력은 1937년에서 45년사이 30배로 증가했다; 김웅희, 「북한의 협상전략·전술에 관한 연구」 통일원, 「민족통일의 모색」, 통일가족논문집 제2집 (서울: 국토통일원, 1990), p. 274; 김준엽, 「남북협상과 국공협상의 비교에 의한 우리의 대책」, p. 38.

**사실왜곡 전술 및 흥정전술(Haggling):** 중공측은 거짓정보나 선전을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려 하였다. 또한 상대측제안에 대한 수락조건으로 무리한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합의가능범위를 확대시키려 하였다. 4차 협상(1944.11)에서 중공측은 국공간의 대치중지와 일치항일, 신민주주의 연합정부수립 등을 과장 선전 하였다. 이를 통해 중재자 미국과 중립주의자들을 포섭하였고, 동시에 국민당정부의 고립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중공은 3~6차까지의 국공협상에서 표면상 평화통일·중국건설을 주장하면서도 전제조건 등을 통해 실제적으로는 변구정부의 인정과 중공의 합법성 인정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다.<sup>24)</sup>

**위협 혹은 기만전술(Bluffing & Lying):** 중공은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협상상대의 인내력과 합의가능범위를 시험하거나 회담결렬을 담보로하는 강성 주장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담을 주도함으로써 상대방의 양보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 제6차 중경회담시 중공은 군대의 국가화 문제, 정치공작원 문제 등에 불리한 합의를 요구 반자 이를 거부하기 위해, 정당간의 평등문제와 정치협상회의 소집이라는 반대조건을 통해 회담결렬도 불사한다고 위협하였다.<sup>25)</sup>

24) 김준엽, 「남북협상과 국공협상의 비교에 의한 우리의 대책」, p. 41; 각기 전술에 관해서는 David Churchman, *Negotiation Tactics*, p. 29.

25) 김준엽, 「남북협상과 국공협상의 비교에 의한 우리의 대책」, p. 42.

**일보일진 전술(Salami Slicing):** 중공은 선행협상에서 제안된 합의 내용과 유사한 추가제안을 함으로써 협상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다. 중공은 그들이 제시한 요구조건이 합의점에 도달할 것 같으면 다시 새로운 제안을 추가 제의했다. 이런 전술은 제3차 협상시 중공측 임조함이 국부측에 4군 12개사단의 보유 사실 인정을 요구하였다가 제4차 협상에서는 5군 16개사단으로 증대된 병력 인정 요구를 수정제의 한 예에서 볼 수 있다.<sup>26)</sup>

**지연전술(Delay):** 중공은 협상내용에 관심이 없을 때, 본질적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지연시키고 주요 문제에 대한 토의를 회피하려 했다. 1945년 8월 29일 연합정부개조에 관한 제6차 중경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중공측의 주은래는 첫 일주일간을 의사절차만 토의하자고 제의함으로써 회의를 지연시켰고, 회의 내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중경협상에서 국민당측은 삼민주의 실현과 군사이동 중지 등 11개항에 걸친 화평건국안을 제시하였으나 중공측은 삼민주의와 관련한 1~2개 조항에만 원칙적인 합의를 보였고, 변구정부 인정, 중공군 사단의 확충을 골자로하는 무리한 전제조건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협상을 교착에 빠뜨리려고 했다.<sup>27)</sup>

---

26) 위의 책, pp. 41~42.

27) 위의 책, pp. 34~42.

#### 다. 파리평화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월맹의 협상전술

베트남 민주공화국(이하 월맹)은 베트남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철수와 월남내 베트콩의 합법성을 쟁취할 목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하였다. 월맹은 1967년 9월 29일 존슨 미대통령이 월맹의 북위 20도선 이북 지역에 대한 폭격 중지안을 통해 평화협상을 제안하자 1968년 4월 북폭 및 일체의 전쟁행위 무조건 중지를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결국 양측은 1968년 5월 13일 파리에서 제1차 미·월맹대표단간의 정식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협상 끝에 미·월맹간 평화협상은 1973년 1월 베트남독립과 혁명을 지향하는 베트콩에 대한 합법성 인정과 미군을 포함한 동맹군 철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 및 4개 부속 의정서가 합의 됨으로써 막을 내렸다.

협상초기부터 미국과 월맹 양측은 평화정착을 위한 제안과 조건에서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자유진영의 연합군과 월맹군의 상호철수라는 군사적 제안을 내놓았다. 특히, 베트남 장래에 대한 결정은 베트남국민 자신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정치적 선결 제안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월맹측은 두가지 제안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는 바, 하나는 미군을 포함한 용병들(한국, 태국, 호주 등)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철수였고, 다른 하나는 어용적 현정권의 퇴각과 '평화내각'의 수립을 주장했다.

파리협상과정에서 월맹측은 미군에 비해 전력이 열세인 점을

감안하여 유리한 협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월맹측은 협상내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적 선전과 정당성확보를 위한 형식적인 협상에 주력했다. 따라서 자기측에게는 이익이 적더라도 상대측 이익을 침해하는 제안을 통해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주도권을 갖고자 하였다. 월맹에 있어서 제안의 목적은 요구조건을 관철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측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데도 있었다. 월맹측은 정당성확보를 위해 협상과정에 있어서도 베트남전쟁이 민족내부 문제임을 강조하려 하였다. 파리협상과정에서 월맹이 사용한 특징적인 협상전술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니셔티브 확보전술:** 월맹측은 적대세력의 약화와 붕괴를 목적으로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협상환경이 불리할 경우 어떠한 협상제안도 거부하였으며, 협상목적과 상관 없는 무리한 제안을 통해 협상결렬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시키려 했다. 월맹측은 협상에 앞서 협상환경의 변화와 이니셔티브 확보에 협상목표를 두었다. 이는 월맹측이 지속적으로 협상을 거부하다가 1968년 춘계 대공세 이후 전황이 유리하게 반전되자 미국과의 협상에 동의한 사례에서 알 수 있다.<sup>28)</sup>

**처음부터 최종제의를 하는 전술(Boulwarism)<sup>29)</sup>:** 월맹측은 불

28) 통일원, 「월맹의 대미협상전략」 (서울: 국토통일원, 1978), pp. 49~53.

29) 보울웨어리즘전술이란 원래 미국 General Electric회사의 부사장인 보울

리한 상황에서의 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무리하고 강경한 제안을 내놓아 상대입장의 약화와 양보를 얻으려고 했다. 월맹은 협상이 시작되자 자기측 협상제안은 확고하며, 따라서 여하한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하려 하였다. 제1차 확대파리협상(1969.1.25)에서 월맹측은 미군의 완전 철수, 민족·민주연합정부 수립과 자유선거 실시 등이 제안을 하여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고자 하였다.

**위협 혹은 기만전술(Bluffing, Lying):** 월맹측은 협상과정에서 사실을 왜곡, 과장, 기만함으로써 회담결렬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시키려 했으며 세계 여론을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전술을 사용하였다. 특히, 전쟁결과에 대해 거짓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상대측의 사기저하를 의도하였다. 사례의 하나로 월맹은 미국이 제네바협정을 무시하고 비무장지대를 집중적으로 폭격하였다고 주장하여,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책임을 미국과 동맹국에 지우려 했다.<sup>30)</sup>

**비밀협상 전술(Off The Record Negotiation)과 우월한 입장에서 협상종결:** 월맹측은 협상교착 타개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

웨이(Lemuel Boulware)씨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는 임금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주장을 들은 후 종합적인 분석 끝에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안을 모아 처음부터 결론적인 최종제의 혹은 최후 통첩안을 내놓음으로써 명성을 얻게되었다; David Churchman, *Negotiation Tactics*, p. 20.

30) *Ibid*, pp. 63~66.



비밀협상에 응했다. 그러나 월맹은 비공식적 채널의 협상도 자신의 협상이니서티브를 갖기 위한 선전차원에서 악용하려 했다. 1969년 8월 이후 파리 평화협상이 공전하자 키신저 미국무장관은 레득 토, 수안 투이 등 월맹측 협상대표단 수뇌와 비밀협상을 벌였다. 비밀협상을 통해 미국은 1971년까지 미군의 완전철수와 티우정권에 대한 지지철회를 보장하는 선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월맹측은 전쟁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자 미군의 조기 철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월맹과 임시혁명정부 대표들은 미국측 제안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면서도 추가적인 정치제안을 했으며, 비밀협상을 통해 미국측이 새로운 양보를 하면 또 다시 미국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했던 것이다. 결국 닉슨대통령은 비밀협상을 공표(72.5)하였고, 중국방문과 소련방문을 계기로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해 협상 교착을 타개하려고 시도 했다.<sup>31)</sup>

## 라. 시사점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에게 있어 협상이란 불가피한 타협으로 인식될 뿐이다. 이점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전술은 협상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성이나 공격성과 같은 가치체계는 무시되며, 효율성과 효과만이 전술선택의 기준이 된다. 특히, 합의에 도달할 의도가 있는 협상과 의도가

31) 정종문, 「월남협상사태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74), pp. 53~54.

없는 경우 등 협상배경과 과정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의 협상행태는 다르게 나타난다.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사례를 통해 밝혀진 협상전술의 공통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상행태로서 합의에 목표를 두는 협상과 그렇지 않은 협상 사이에 전술상의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가령 1~3차까지의 국·공협상은 합의에 목표를 두기 보다는 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한 협상에 목표를 두었다. 이 경우 협상과정에서 회담결렬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대내외적인 선전 효과나 시간벌기를 목표로 하는 전술을 통해 상대의 협상상황이나 협상위상을 변화시키는 데 그들의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와 달리 미·소간의 전략무기제한협상(SALT-I, II)은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환경을 만들려는 데 노력했다. 이는 협상환경의 변화와 중요도 혹은 의제별로 전술상의 차이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협상의제의 논의보다 협상의 분위기 및 그들의 협상위치를 개선하는데 매우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의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협상외적인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획득하려는 협상목적에 더 큰 관심을 갖는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중국의 협상사례에서 공산당이 협상초기 그들의 정당성과 대국민당 대등위치를 확보하는데 비중을 둔 사실이 나, 베트남 협상에서 월맹이 베트남의 협상지위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사실 등은 모두 위의 협상특징을 실증하는 사례이다.

셋째,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전술 운영방식에서의 특징으로 협상 원칙을 선택하려는 시도를 언급할 수 있다. 협상진행과정에서 공

산주의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식은 협상의제의 논의 이전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는 원칙이나 규범을 제의하되, 이 원칙이 그들 스스로를 제한하지는 않는 내용을 합의하려 한다. 설령 그들마저 제약하는 원칙인 경우, 그들은 이를 무시하고 상대방에게만 적용시키려 한다. 이러한 사례는 소련이 전략무기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이나, 중국의 화평건국안 수용방식, 그리고 베트남의 협정 성격의 민족주의화 시도 등에서 볼 수 있다.

넷째, 이미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가지 특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단선적인 협상을 피한다는 사실이다. 즉 그들은 협상의 진행, 의제, 운영방식 등 다양한 면에서 단조로운 협상을 피하며, 협상이 시작되는 준비기, 진행기, 종결기의 목표를 각기 상이하게 설정함으로써 협상과정을 ‘불연속의 연속성’ 상태로 이끌어 간다. 따라서 협상전술의 선택도 목적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구사하고 있다. 실제로 국·공협상의 경우 중공측은 협상초기 우호적인 협상환경을 조성하여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협상진행기의 경우 자기측에 유리한 제안 관철을 위해 상대에게 압력이나 위협을 가함으로써 상대측의 합의가능범위 확대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종결기에는 자신의 양보선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협상교착까지도 불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들은 단계별 목적과 전술의 상이성을 유지함으로써 선행협상에서 얻은 양자간의 공통합의를 후속 협상의 낙관적 협상진행의 조건으로 만들지 않았다. 특히, 공산주의 협상자들은 ‘원칙’에 대한 합의와 ‘Agreement’를 별개로 인식하

고 있으며, 합의란 단지 협상당사자들이 서로를 위해 협조적으로 노력한다는 일반적 행동 지침으로 해석할 뿐이었다.<sup>32)</sup>

### 3. 연구 분석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협상 전략·전술의 개념과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사례 연구결과를 고려해 보면 협상전술의 연구는 대체로 협상전략적 입장과 단계별 협상과정 검토라는 두 방향에서 진행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북한 협상전술을 분석하기 위해 위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방법으로서 협상환경에 의해 결정된 북한의 대화전략적 입장의 구분과 북한의 협상 진행 단계별 구분을 교차적으로 비교하여 처리해 보도록 한다.<sup>33)</sup>

협상환경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입장을 살펴보기 위한 회담유형의 구분은 공세적 협상 사례와 방어적 협상 사례로 나누어 이분법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협상전략적 입장에 따른 협상 사례 분류 의도는 협상자가 의제의 중요성에 따라 협상전술을 달

32) Richard H. Solomon, "Chinese Political Negotiating Behavior : A Briefing Analysis," pp. 1~6.

33) 일반적으로 협상의 배경검토를 통해 협상전략적 목표를 구분하는 이유는 협상자가 협상에 임하는 목적에 따라 협상전술의 선택을 달리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연구명제로 하기 때문이다. 협상배경을 분석함으로써 협상의 목적과 전략을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협상전략적 입장의 변화가 협상전술 선택의 변화와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협상의 진행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상호 직면하고 있는 입장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상호 접근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협상자의 선택은 협상상황과 연결되어 달라지게 마련이며, 협상진전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전술선택으로 나타나게 된다.

리 선택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다수의 협상사례와 협상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분석이 불가능한 정도로 발생하는 협상전술 경우의 수를 줄이는 데 있다. 즉 다양한 의제를 통해 수없이 반복되어 온 남북한간 대화를 복한 협상태도별 분류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협상사례별로 나타나는 유사한 협상전술에 대한 불필요한 개별분석을 피하고, 나아가 협상전술의 유형화와 일반화 시도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한편 협상단계별 구분은 구체적으로 협상준비기, 협상진행기, 협상종결기의 3단계로 나누도록 하되,<sup>34)</sup> 협상준비기는 대화제의 시점으로부터 협상 본회담이 개최되는 시점까지로 구분한다. 따라서 준비기에 발생하는 북한의 협상분위기 조작 시도, 협상절차 처리, 협상의제 결정과정 등 협상의 일반원칙 합의과정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취급하도록 한다. 한편 협상진행기는 이미 결정된 의제와 절차에 따라 협상의제를 중심으로 본회담이 진행되는 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진행기의 협상전술 연구는 협상자가 상대방과의 의제논의 과정을 통한 의제수정 혹은 타협 과정이 연구분석의 대상이 된다. 협상종결기는 본회담의 성격이 변화되기 시작한 경우를 중심으로 회담의 합의, 중단 혹은 결렬의 이유와 원인을 연구대상으로 한다.<sup>35)</sup>

협상전술의 효용성 평가는 사용되는 협상전술과 협상의제 및

34) Richard H. Solomon, "Chinese Political Negotiating Behavior: A Briefing Analysis," pp. 1~4.

35) *Ibid.*, pp. v~vi.

시기별 연계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수행한다. 즉 협상전술의 선택과 사용이 협상의제 및 시기와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전술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북한 협상행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1> 협상전략 유형과 협상 단계의 상관성

	공세적 회담	방어적 회담
준비기	회담의 일반원칙 강요	일반원칙 상호 합의
진행기	상대방의 의제전환 강요	상호 타협으로 의제전환
종결기	협상결렬 불사양	합의도출이나 협상환경 전환 시도

본 연구에서 북한의 협상전술 평가를 위해서 사용될 준거로는 위에서 서술해 온 공세적 협상과 방어적 협상이라는 협상전략 유형별 협상목적과 협상전술의 단계별 목표를 상호 관련지어 사용한다. 공세적 전략 선택시 북한의 협상목표는 북한내부 사정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대남한 교란을 유도한다는 것이며, 방어적 회담에서는 북한이 직면한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회담이 의 성취이다. 따라서 두 유형하의 협상환경 및 회담운영 양상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회담에서 사용된 협상전술의 평가를 진행한다.

한편 단계별 협상 목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준비기에서 협상자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반원칙 합의 유도 성공여부, 진행기

에 있어서의 협상목표인 의제 전환 및 이를 위한 상대 압력 가하기, 상대의 인내력 점검 등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협상종결기에서는 협상환경 전환을 목표로 협상교착위협이나 의제추가제안 등의 전술사용을 기준으로 북한의 협상전술 사용사례를 비교해보기로 한다.

따라서 북한의 협상전술 사례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반협상의 구조와 목적을 전제로 실제적으로 사용된 북한 협상전술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공세적 협상에서 준비기의 협상전술 선택은 협상 상대를 압도하는 데 필요한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방어적 회담에서는 회담진행에 필요한 일반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협상자에 의해 선택되는 전술 역시 공세적 회담에서는 일방적 공세를 위한 일반원칙 강요 전술이 주가 되며, 방어적인 회담에서는 일반원칙을 합의하기 위한 상호 타협적 전술이 주가 된다.

진행기의 협상은 공세적인 경우 의제전환을 위해 협상상대의 변화를 유도하는 일방적 강요 전술이 사용되는 반면, 방어적 회담인 경우 합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의제를 전환하려는 상호 타협적 전술이 선호된다.

종결기에서는 공세적 회담의 경우 합의 실패에 따른 협상중단과 결렬을 감수하는 전술이 선택되는 반면, 방어적 회담에서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술이나 협상환경 전환을 위한 전술이 사용된다.

## 제Ⅲ장 북한의 남북대화 참여배경과 전략적 입장

### 1. 남북대화 배경

북한의 남북대화 목표는 국가 목표인 남한공산혁명 달성과 한반도 공산화통일에 연결되어 있다.<sup>1)</sup> 따라서 북한의 대화전략 역시 대남한 공세차원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그 결과 남한의 대응방안도 수세적인 방향에서 수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sup>2)</sup>

그러나 남북대화는 20여년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어 온 만큼 대화환경의 변화와 남북한이 직면했던 분야별 상황의 차이로 말미암아 각각의 회담마다 다른 배경하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를 획일적 접근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협상사례마다 개최 당시의 대화배경을 통해 북한의 협상목표 및 협상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적 입장 분석에 이용하기로 한다.

- 
- 1) 양영식, 「북한의 협상전술」 (서울: 국토통일원, 1990), pp. 15~23; 강인덕, 「북한의 남북대화 전략전술 평가 및 전망」 (서울: 통일원, 1990), pp. 4~13 참조.
  - 2) 양영식 교수는 북한의 남북대화 추진 전략을 주체사상 관점 견지와 남조선 혁명노선 관철이라는 두 방향으로 집약시키고 있다. 양영식, 「북한의 협상전술」, p. 18.



### 가. 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의 참여 배경

1970년대초 추진된 남북한간의 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 개최 당시 남북간 대화환경을 살펴보면 몇 가지의 특징적 상황이 나타난다. 첫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베트남에서 공산주의의 승리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베트남 전쟁의 결과는 북한을 고무시켜, 결과적으로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남적화 통일의 수단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무장공비 남파로 남한사회에 혼란유발을 기도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정부 전복을 위한 소위 통일전선전술 추진의 일환으로 당시 남한사회 내의 반정부세력과 제휴를 모색하기도 하였다.<sup>3)</sup>

둘째, 국제정세면에서 당시의 상황은 미·소간 데탕트시대의 개막과 함께 아시아에서의 역할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결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미군철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그들이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가 되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자발적 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북간 긴장완화의 환경을 필요로 하였다.

셋째, 1961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제1차 7개년 경제계획이 3년의 연장기간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난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경제

---

3) 1971년 대통령선거와 뒤이어 열린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야당의 상당한 약진은 당시 남한사회 내 반정부적 성향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미 1968년에는 북한이 남한내 통일전선전술 실천을 위한 전위조직을 결성하려 한 사례로서 통혁당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북한은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장비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남한과의 군비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남한의 군비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어 남한과의 대화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당시의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한간 대화를 필요로 하지는 하였으나, 그 필요성이란 남북한 사이에 제기되었던 대화의제의 해결이나 상호 의견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즉 북한의 대화참여는 대남공세의 수단으로 남한내 사회여건 변화를 모색하여 친북세력 이식을 가능하게 하려는 주요 목적 외에도 주한미군 철수 여건 마련과 남한의 군사력 확장 견제의도하에 대남 위장평화공세의 목적을 갖는 것이었다.

#### 나. 체육회담 참여 배경

1979년 평양에서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던 북한은 세계탁구협회 회원국인 한국을 초청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조선' 정책하에 한국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었던 북한으로서는 한국의 피초청자격을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참가를 봉쇄하기 위해 적절한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남북한간 체육회담을 제의하였다.

또한 LA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를 의제로 개최되었던 1984년의 남북한간 체육회담은 북한으로서는 올림픽 불참명분을 만들기

위해 동의한 것이었다.<sup>4)</sup> 당시 소련의 주도로 대다수 공산권 국가들이 올림픽 참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으며, 이에 북한은 남북한간 체육회담을 통해 불참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로 체육회담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서울 올림픽 공동개최 문제를 논의한 1985년 로잔느 회담은 올림픽 유치로 남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상태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은 한반도의 불안정상태를 이유로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서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IOC에 대해 개최지 변경을 요구했으며,<sup>5)</sup> 이에 대해 IOC는 체육회담 중재의사를 남북한에 표출하였다. IOC의 회담중재 제안에 대해 초기에 거부의사를 밝혔던 북한은 서울 올림픽 개최가 기정사실화 되어 가자 태도를 바꾸어 IOC 중재의 남북간 체육회담에 응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IOC에 의한 서울올림픽 개최 결정 번복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서울올림픽을 반대함으로써 초래된 그들의 국제적 고립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취해진 선택이었다.

서울올림픽 이후 북경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개최된 1989년의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체육회담은 동서냉전 종식의 영향을 받은 최초의 대화였다. 종래 일방적으로 북한편향적 태도를 보여 온 중국이 대회개최국으로서 남한의 대회참가를 희망하는 가운데, 북한은 경기력에서의 열세 우려와 함께 남한의 대회참가가 남한

4) 올림픽경기 및 국제경기대회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지는 제안은 남한이 이미 1981년부터 계속해서 제의해 온 것이었다. 국토통일원, 「남북대화 백서」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190.

5) 위의 책, p. 306.

정부의 북방정책 전개과정의 일환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의 북방정책에 따른 국제사회 고립심화를 견제하려는 목적과 함께 남한의 대회참가 봉쇄를 목적으로 남북간 체육회담을 진행하였다.

#### 다. 남북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배경

남북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이루어진 1980년 1월의 상황은 남한에 매우 불리한 것이었다. 1979년 10월 박정희대통령 암살사건 이후 혼란에 직면하고 있던 남한의 과도기 정부는 사회 내부 안정화에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북한과의 대결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소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총리를 포함하는 남한내 각계인사 10인에게 개인적 차원의 대화를 제의하였다.<sup>6)</sup> 북한의 총리대화제의 의도는 남한과도정부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남한정부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것으로 대남한 위장평화 공세의 일환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6) 북한 부주석 김일의 명의로 발송된 편지의 수신 대상은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김영삼, 양일동, 김철, 안필수, 김수환, 김종필, 이희성, 정일권씨 등이다. 강인덕, 「북한의 남북대화 전략전술 평가 및 전망」, p. 60.

## 라. 적십자회담 및 경제회담 수락과 국회회담 개최제의 배경

1984년 북한의 수재물자 제공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개최된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 그리고 국회회담 예비접촉은 모두 당시의 상황과 밀접히 연결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기도한 1983년 버마 아웅산에서의 전두환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은 다수의 남한 각료 및 요인을 살상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남한에서는 정당성 확보의 과제를 안고 있던 제5공화국 정부가 안정화를 이루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웅산 사건으로 인하여 대남전략의 실질적 실패를 경험한 북한은 이듬해의 남한 홍수재해를 만회의 기회로 삼으려 하였다. 1984년 9월 북한은 남한에서 발생한 수재 피해를 돕기 위한 물자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대외선전적 차원에서 국제 여론의 긍정적인 전환을 기대하는 한편,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 하였다. 남한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년 10월 남북한 적십자사의 주관하에 북한 수재 지원 물품이 남한에 인도되기에 이르렀다.

수재물자의 인계·인수 이후 남북한은 각자 다른 목적하에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7) 북한은 남한사회 내부동정 확

---

7) 남한의 의도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적십자회담 재개 제의만이 아닌 새로운 경제회담의 병행 개최를 제의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국토통일원, 「남북대화 백서」, p. 188 참조.

인과 새로운 대남전략 추진을 위해 남한과의 대화에 나서게 되었다. 즉 북한의 의도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전환시키기 위한 대외명분 확보 소재로 남북대화를 이용함은 물론, 수재물자 지원에 따라 남한사회 내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중의 친북한 감정을 실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이 제의해 온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예비접촉과 경제회담 개최의 수락은 물론, 그들의 주도하에 남북한간 국회회담 개최를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 마.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시의 대화환경

1980년대 후반의 국제정세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보였는 바, 1985년 집권한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미·소간 신데탕트 시대를 이끌어 한반도 통일환경을 바꾸어 놓는 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소련의 탈이념화 정책은 동서관계를 대결과 경쟁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공존과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동북아에서 구축되어 있던 기존의 강대국간 정치군사적 긴장관계 역시 긍정적 협력관계로 이어졌다. 한편 중국에서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진행이 심화되어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당면 과제도 동서간 정치·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공존과 경제발전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에서는 남한이 서울올림픽 유치

및 개최 등으로 갖게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 소련, 중국 및 동유럽국가와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북방정책 추진 결과에 따라 남한의 대북한정책도 대결구도로 부터 평화유지와 공동번영을 목표로 변화하게 되었는데, 이는 남북한 화해 시대를 앞당기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결과로 이해되었다.<sup>8)</sup>

결국 1980년대 후반의 한반도 상황은 공산세력 약화를 초래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한 우위의 한반도 불균형 역학관계 정착 가능성으로 특징지워졌으며, 북한지도자들은 체제 안보에 관하여 위기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우선적으로 체제안정화와 남북한 경쟁에서의 균형유지를 위한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남한측이 제의해 온 정치·군사 분야와 기타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한 고위당국자회담을 수용하게 되었다.

## 2. 북한의 전략적 입장 구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각의 남북대화 사례별 북한의 입장은 서로 달랐던 바, 북한이 남북대화에 참여한 이유는 대체로 두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첫째, 그들의 체제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운데 남한의 실력을 점검하거나 남한의 체제 혼란을

---

8)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지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명명된 7.7선언을 발표하여 한반도 분단관리 정책에 있어서 남한의 능동적인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목적으로 하는 경우였으며, 둘째, 대화시점의 시대적 상황이 그들의 체제안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남북대화를 진행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회담의 성격은 공세적이었으며, 후자의 경우 회담의 성격이 방어적이었음을 쉽게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회담의 전략적 유형 구분을 실제사례와 연결시켜 본다면 전자의 공세적 회담 사례로는 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의, 1979년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재개, 경제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사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 회담들은 대체로 남북한 사이에 협상이 성사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협상이 개최되더라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시점에서 주로 북한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성사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 협상사례들은 협상의도와 협상의제가 상호 관련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지며, 남북협상을 수단으로 대남공세를 추진하는 북한의 전형적 협상의도에 부합되는 협상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방어적 회담 사례로는 LA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로잔느 체육회담, 1989년 북경아시안게임 대비 체육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회담들은 회담배경을 살펴 볼 때 북한의 입장이 약화되었거나 북한이 남한과의 협상을 통해 획득하기를 원하는 특정 목표 혹은 가치가 실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남북협상의 개최 및 진행이 북한의 내부사정이나 주변환경과 긍정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회담사례라고 할 수 있



으며, 북한의 일방적인 회담진행이 용납되지 않는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다양한 의제를 대상으로 전개되어 온 남북회담 사례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게 된다는 약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대부분의 회담 사례가 대남공세와 북한내부 안정이라는 이중목적의 지니기 때문이다.<sup>9)</sup> 따라서 공세와 방어라는 북한의 회담전략 입장에 관한 이분법적 구분은 각 회담사례에 대한 주관적인 구분기준 부여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하나, 회담의 성격 부여가 공세와 방어라는 양극점을 기준으로 어느 한 방향에 더 가까운 정도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제기될 비난을 감수하기로 한다.

---

9) 공산주의 이념의 약화를 경험하게 된 1980년대 중반의 적십자회담 재개 경우와 경제회담 등은 구분이 모호한 양면적 성격의 회담이었다. 그러나 회담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협상태도는 회담에 관한 관심보다는 회담외적 목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lt;표 2&gt; 북한협상 사례의 전략적 구분

협상 사례	협상개시 시 기	협상배경 및 목적	전략적입장 구 분
적십자회담	1971	남한 실력 점검	공세적 회담
남북조절 위원회의	1971	남한실력 점검	공세적 회담
평양탁구 체육회담	1979	남한참여 봉쇄	공세적 회담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	1980	남한사회 혼란 유도	공세적 회담
LA 올림픽 대비 체육회담	1984	북한불참명분 확보	방어적 회담
적십자회담 재개	1985	남한태도 점검	공세적 회담
경제회담	1985	남한태도 점검	공세적 회담
남북국회회담	1985	남한사회혼란 유도	공세적 회담
로잔느회담	1986	북한불참명분 확보	방어적 회담
북경 아시안 게임 대비 회담	1988	북한의 고립 심화 견제	방어적 회담
남북고위급회담	1990	북한체제 안정화	방어적 회담

## 제Ⅳ장 공세적 회담에서의 협상전술

### 1. 북한의 협상 진행과정

#### 가. 적십자회담

##### (1) 준비기 상황

적십자회담은 1971년 8월 남한 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의에 대해, 북한 적십자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수락과정에서는, 남한측 제의가 양측 대표의 만남에 대한 동의와 불확정적인 회담시기를 언급하고 있었던 데 비하여, 북한은 회담의 의제, 방법, 이산가족의 범위 및 파견원 접촉까지를 적십자사 위원장의 회담 수락서한에 포함시킴으로써 남한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과시하였다.

회담개최를 위해 남북이 일차적으로 추진한 파견원 접촉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양측간 파견원 접촉에서 예비회담 일정이 합의되었다. 예비회담시 회담일정 합의과정에서 북한측은 남한측 제의인 9월28일을 동월 20일로 앞당기도록 수정제의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후 25차례나 개최된 예비회담에서는 본회담의 의제와 절차에 관해 남북한 사이에 유리한 회담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적 대

화가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처음 나타난 남북한간 갈등은 남한측이 예비회담 운영 및 진행절차를 우선 논의하도록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본회담 의제와 진행절차를 바로 논의하도록 주장한 점이다.<sup>1)</sup> 그러나 북한측은 2차 예비회담에서 이를 철회하고 남한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예비회담 진행절차와 의제에 합의하였다. 회담장소에 관해서도 북한측은 1차로 판문점을 고정장소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3차 예비회담에 임해서야 서울측의 주장대로 남북한지역에서 윤번제로 개최토록 할 것을 수용하였다.

6차 회담으로부터 시작된 본회담 의제에 관한 토의에서는 북한 적십자사측이 이산가족의 범위에 친우를 포함시키도록 하자는 주장과 이산가족의 尋人事業 우선의 필요성을 건너뛰어 '자유내왕과 상호방문'에 비중을 두므로써 의제 합의를 어렵게 하였다. 이에 양측간에는 의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14회의 예비회담과 13회의 비공개 실무회의가 추가로 요구되었으며,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1972년 7월 제21차 예비회담에서 논의된 대표단 구성문제는 쌍방간 합의한 내용외에도 북한측이 자문위원 구성을 새로이 제기함으로써 남북한간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는 북한측이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을 회담에 참여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제의로,<sup>2)</sup> 적

1) 1차 회담에서 북한은 본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하고, 회담의제로서 이산가족의 범주에 친우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본 회담 대표로는 남북한 적십자사 총재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한다는 등의 제안을 하였다. 국토통일원, 「남북대화 백서」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44.

십자회담을 종래 북한이 요구해 온 남북한간 정치회담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 남한은 막바지에 이른 예비회담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 자문위원단 구성에 합의하였다.

본회담 진행절차를 논의한 23차 예비회담에서 북한측이 대표단 수행원 및 지원인원 수의 축소 주장도 남한과의 갈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의 하나이다. 북한은 지원인원 수의 축소 및 외신기자 불포함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제의에 의해 결정된 본회담 일자(8.5)를 넘겨버리게 만들었으며, 3차례의 실무회의까지 개최토록 하여 그들의 주장이 양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남한측에 인식시키려 하였다.

## (2) 진행기 상황

예비회담 합의사항에 따라 1970년대에 개최된 7차례의 적십자 본회담 중 1차와 2차회담에서는 예비회담에서 합의한 5개 의제를 회담의제로 쉽게 합의하였다. 그러나 의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적십자회담의 성격을 변질시키는 데 관심을 두었는데, 북한이 1차회담에서 다수의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의 축하연설을 회담과정에 포함시킨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의 회담 비대표 연설자들은 통일문제나 외세배척 주장을 주로 언급하였는데,<sup>3)</sup>

2) 북한측은 1960년 연방제 주장이래로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을 포함하는 남북한간 정치협상회의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러한 행동들은 북한이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찾기 문제 외의 남북한간 정치문제에 초점을 두기 위한 분위기 조성 방안이었다.

3차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심인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희망한 남한에 대하여 북한 적십자측이 한국사회 환경 개선을 먼저 시행토록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은 3개 항목을 추가하여 4개항의 선결과제를 제시하였는데, 「법률과 사회환경 개선」과 함께 적십자 「了解解説委員」 파견, 본인의 요구에 따르는 친척범위와 심인방법 결정, 「남북적십자 공동위원회」 구성과 남북한 내 각지에 적십자대표부 설치 등이었다. 결국 3차회담에서 북한은 남한과의 절충을 모색하기 보다는 적십자사업의 범위를 넘는 정치적 제안을 제의·고수함으로써 남한으로부터 회담주도권 획득 및 대남한 우위의 회담명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4차회담부터 7차회담까지는 남북한간에 나타난 의견차이를 확인하는 대결적 분위기로 일관되었다. 북한은 정치적 의제만을 고집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산가족 개인활동 허용과 이를 위한 여건조성 조건으로 반공법 철폐를 요구한 사실을 들 수 있다. 6차회담 진행과정에서 북한측은 자문위원의 발언권을 주장하여 회담의 성격을 변질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요해해설위원의 파견문제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sup>4)</sup>

- 
- 3) 북한은 회담행사의 하나로 소위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 8인의 축하연설을 준비하였다; 통일원, 「남북대화사료집」 제4권 (서울: 국토통일원, 1994), pp. 66~86 참조.
- 4)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요해해설위원은 동단위에 1인씩 파견하고, 홀어

7차회담에서 남한측은 추석성묘방문단 상호교환을 제의한 바 있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남한내 사회환경 조성 문제 해결을 반복·강조하였다. 특히 그 내용은 종래 주장보다도 더 구체화되어 남한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sup>5)</sup> 결국 북한은 이를 구실로 8차회담을 거부하게 되었다. 특히 8차회담은 남북한이 상호 개척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으나, 북한이 합의를 무시하고 남북조절위원회의 중단과 병행하여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말았다.

### (3) 종결기 상황

남북조절위원회의 중단조치와 함께 북한은 예정된 8차 적십자 회담도 중단시켰다. 그러나 남한 적십자측이 연락책임자 회의를 제안하자 북한은 이를 수용하여 1차회의에 대표를 참석시켰다. 1차회의에서 북한은 1인의 적십자 본 회담 대표를 참석시키는 확대 「대표회의」를 개최토록 제의하고, 이후 6차례의 대표회의에

---

진 가족 실태를 요해하며, 언론, 출판, 집회, 통행의 자유와 인신 및 휴대품의 불가침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국토통일원, 「남북대화 백서」, p. 99;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이해한다면 북한의 요해인원은 그 숫자가 수천에 달하게 되며, 남한사회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정치 활동을 통해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북한이 공동성명 형식으로 남북한이 합의하자고 주장한 내용은 남한의 반공법 철폐, 반공활동 금지와 반공단체 해산, 이산가족 찾기 사업 참여자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남북한간 군사적 대치상황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위 내용에 대한 조치 및 공포 등이다. 「김태희 기조연설」, 통일원, 「남북대화사료집」 제4권 (서울: 통일원, 1994) pp. 559~560.

대표를 파견하였다.<sup>6)</sup>

대표접촉 과정에서 남한이 본회담 재개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북한은 3가지의 본회담 재개조건을 남한측에 제시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조건은 남한측 대표 개편, 남한내 반정부 세력 탄압 중지, 8차 본회담 평양개최 등이었는데, 이 조건들은 남한적십자 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sup>7)</sup> 특히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이어서 적십자회담에서 언급할 내용이 아니었음은 물론, 본회담 개최 장소에 관해서도 '윤번제 개최'라는 기합의된 관행 조차 무시하는 무성의한 것이었다.

대표회의를 거쳐 남북이 합의 개최한 실무대표회의는 1974년 11월부터 1977년 12월까지 3년이라는 기간동안 25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회담과정에서 북한측은 본회담에서 이미 제시한 바 있는 이산가족 해결을 위한 「조건환경 개선」 주장을 반복하여 그들의 태도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sup>8)</sup>

더욱이 북한은 남한내 정치문제인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 반공정책, 그리고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적십자회담 토의의제로 삼도록 주장함으로써 적십자회담과 정치회담의 차이를 무시하였다. 결국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남북적십자간 실무대표 회담은 중단되고 말았다.

6) 남한은 김달술 대표를 선임하였고, 북한은 조명일을 참석시켰다.

7) 통일원, 「남북대화사료집」 제4권 (서울: 통일원, 1994), p. 845 참조

8) 조건환경 개선의 제 내용은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철폐, 반공단체와 기구 해체, 반공정책 중단, 정당 사회단체의 적십자회의 참가 등과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도록 법·제도적 보완조치를 정부당국에 요구할 것 등이다. 통일원, 「남북대화백서」, p. 113.



## 나. 남북조절위원회의

### (1) 준비기 상황: 공동위원장 회의

적십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추진된 남북조절위원회의는 분단 이후 남북당국자가 대면한 최초의 정치회담으로 회담의 목적은 양자간 불신을 해소하고 평화공존을 모색한 의미있는 회담이었다.

적십자 예비회담 대표였던 남한의 정홍진과 북한의 김덕현이 실무자로서 11차례의 접촉을 가진 끝에 성사된 내용은 이후락 당시 남한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 사이의 정치회담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개최한다는 것이었다.<sup>9)</sup> 이를 위해 남북간에 직통전화를 가설·운영하기로 한 사실이 실무 접촉에서 합의된 중요사항이었다.

이후 평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양측 실무자간에 합의한 내용은 통일 3원칙이 포함된 「남북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으며, 이어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가 3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공동위원장간 1차 회의에서 북한측은 남한에 대해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한 대로 통일 3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공산주의 용납, 통일과 관련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 포기, 유엔의 한반도 문제 불

9) 통일원, 「남북대화 사료집」 제7권 (서울: 통일원, 1994), 제1장 참조

개입, 미군 철수, 국군의 전력 증강 중지 등을 요구하였다.<sup>10)</sup>

2차회의에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통일3원칙에 대한 일방적 해석을 고집하였으며, 반공정책 포기 및 주한미군 철수, 한·일관계 단절을 요구하여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적 협상태도를 견지하였다. 다만 2차회담에서는 남북한간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양측의 상대방 비방 방송중지, 군사분계선의 선전방송 중지, 상대지역에 대한 전단살포 중지 등을 합의하였다. 1972년 11월 30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회의에서는 양측이 「남북조절위원회」 대표단 구성에 합의하고, 본회의 일정을 결정하였다.

## (2) 진행기 상황

서울에서 먼저 개최된 남북조절위원회의 1차 본회의에서는 남한측이 위원회의 실무적 기능 정비와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정립의 필요성을 제의한 반면, 북한측은 남북공동성명에 양측이 합의한 이상 남북은 상호 신뢰관계가 구축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한 사이에는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방안과 같은 실무적 의제의 논의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군사대표자 회담 개최와,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 등 5개 분과위원회 발족 문제를 당면 논의과제로 삼을 것을

10) 박성철 발언 참조. 위의 책, pp. 317~323.

남한에 요구하였다.<sup>11)</sup>

2차회담에서도 북한은 회담절차 및 운영에 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남북한간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결이 남북대화 및 관계개선의 환경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였다. 특히 북한은 5개항의 군사제안을 통해 남북한간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했을 뿐만 아니라,<sup>12)</sup> 남북조절위원회의와는 별도로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를 새로이 제의하기도 하였다. 2차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는 대화진전에 부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무리한 주장에서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측 대표들을 대하는 북한의 무성의한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sup>13)</sup> 또한 북한대표 박성철은 회담종료 후 가진 만찬석상에서의 연설을 통해 비공개가 관행이었던 미합의 논의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회담에 대한 성실성보다는 대외선전 소재 확보와 같은 실리획득에 더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11) 박성철 발언 참조. 위의 책, p. 496.

12) 북한의 제안은 남북간 군비경쟁 금지, 군병력 수 10만 이하로 감축, 외국으로부터 무기와 군수물자 반입중지, 외군군대 철수,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통일원, 「남북대화 백서」 p. 73 참조;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합의이행 의사를 가지고 남북대화에 임하는 남한에만 일방적으로 해당될 제안이었으며, 특히 검증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는 가운데 현실성이 없는 제안일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13) 2차 회담 남한대표의 평양도착 과정에서 종래 헬리콥터를 이용하게 한 사실로부터 승용자와 기차를 이용하게 한 것이나, 평양에서 김일성 면담을 시키지 않은 점 등은 북한태도의 변화를 볼 수 있었던 실례가 된다. 위의 책, p. 72.

2차회의에서 나타난 남북간 대결양상은 3차회담에도 지속되었으며, 북한은 2차회의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였다. 이후 북한은 회의지속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중단선언(1973. 8.28)으로 남북조절위원회회의를 결렬시키고 말았다. 특히 회담중단을 선언하는 성명에서 북한은 대화재개 조건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포기'와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확대된 남북조절위원회회의로의 전환'을 포함시킴으로써 남한이 이를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 (3) 종결기 상황

남북조절위원회회의 중단 이후 북한은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민족회의 소집을 제의하여 남북 당국간 대화에는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남한측의 지속적인 대화재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조절위원회회의 개편문제를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부위원장 회의를 개최하는데 동의하여 이후 10차례의 회의가 양측간에 개최되었다.

1차와 2차 부위원장회의에서 북한은 남한내 반공정책의 비난에만 초점을 맞춘 채 남북조절위원회회의 재개문제에 관해서는 토의를 회피하였다. 이후 3차회의에서 북한은 새로이 조절위원회회의 재개방안을 내놓았는데, 북한측의 제안 내용은 정부대표 5인을 포함하는 150인 이상 1,500인까지의 일방 대표단을 구성한다는

것이였다.<sup>14)</sup>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남한의 대화재개 측구에 대한 북한의 무관심태도를 비도덕적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였다.

다만 4차회담에서 북한은 그들의 제안이 비합리적임을 인식하여, 이를 철회하고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즉 기존의 남북조절위원회의는 존속시키되, 별도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하자는 제안이였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통일문제는 남북정치협상회의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 역시 남북조절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 목적에 반하는 것이였다. 또한 북한은 종래 주장과 유사한 4개항의 선결과제를 제안하였는데, 여기에는 6.23선언 철폐, 반공정책 포기,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통일방안 수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남한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였다.<sup>15)</sup>

이후 북한의 대남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북한은 부위원장 회의를 대변인간 회의로 격하시킬 것을 주장하였는 바,<sup>16)</sup> 남한이 이에 불응하자 일방적으로 부위원장 유장식을 해임하고 종래 적십자회담 대표중 1인으로 격이 낮은 조명일을 부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남한측도 대표를 교체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격하된 부위원장회의는 10차에 이르기까지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의 비현실적인 제안만을 가지

14) 위의 책, p. 103.

15) 북한측 대변인 발표; 통일원, 「남북대화사료집」 제8권 (서울: 국토통일원, 1994), pp. 221~225.

16) 북한의 도발사례는 1974년 8월15일 대통령 암살기도 사건, 11월 남침땅굴 최초발견 등을 들 수 있다.

고 공전을 계속하였고, 예정되었던 11차회의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기연기함으로써 이후 남북조절위원회는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 다.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대비 체육회담

### (1) 준비기 상황

북한은 1979년 2월 20일 남한측에 대해 평양세계 탁구대회에 참가할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제의는 4월 25일로 예정된 대회개최를 불과 2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으며, 더욱이 대진표 추첨일은 3월 14일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단일팀 구성이 불가능한 시점이었다.<sup>17)</sup>

### (2) 본회담 상황

4차례 개최된 평양 세계탁구선수권 대회 단일팀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에서 북한측은 남한의 정당한 대회참가 권리를 남북단일팀 구성시에만 인정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1차 회담(1979.2.27)에서 북한은 단일팀 구성문제는 원칙의 문제라고

17) 당시 경향신문(1979.2.23)과 신아일보(1979.2.26) 등은 북한의 남한참여 봉쇄의도를 비난하는 가운데 우리측의 성의있는 대화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간주하고, 절차관련 제안으로 선수단 구성 및 훈련 등에 관한 제안을 함으로써 그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선전함과 동시에 남한이 단일팀 구성 원칙에 거부할 수 없는 회담상황을 조성하려 하였다.<sup>18)</sup>

2차(1979.3.5)와 3차(1979.3.9)회담에서도 북한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여 회담을 공전시켰는 바, 특히 2차회담에서는 북한이 남한의 대회참가 권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단일팀 구성의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남한의 대회참가 기득권을 단일팀 문제와 연계시키려 하였다.

### (3) 종결기 상황

대진표 추첨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4차(1979.3.12)회담에서 북한은 여전히 남한의 대회참가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을 남북쌍방이 단일팀 구성에 합의한 후에 인정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여 남한의 독자적 대회참가 권리를 북한의 단일팀 주장에 연계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이 대회주최국으로서 절대적으로 대회참가가 보장된 가운데, 남한의 대회 참가 봉쇄의 명분을 남북한 체육회담 실패 결과와 연계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회담일정상 단일팀 구성이나 대회참여의 여부 결

---

18) 김득준 발언 참조; 통일원, 「남북대화사료집」 제9권 (서울: 통일원, 1994), pp. 334~335.

정 시한을 거의 두지 않음으로써 남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를 선택하도록 만든 점은 북한의 전술적 선택이 매우 치밀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하겠다.

## 라.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 (1) 준비기 상황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유고로 남한에 과도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측은 소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1980년 1월 한국의 국무총리를 포함하는 각계인사 10인에게 그들과 접촉할 것을 제의하는 서한을 발송했다.<sup>19)</sup> 북한의 제의는 그들이 주장해온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로 망라되는 정치협상회의의 일환으로 각 개인이 북한의 조평통 대표와 만나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총리간 대화가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북의 제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실무대표접촉을 추진하였다.

19) 강인덕, 「북한의 남북대화 전략전술 평가 및 전망」 제3장 참조



## (2) 진행기 상황

총리회담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접촉은 1980년 2월 6일 시작되어 10차례 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과정 처음부터 양자간 갈등을 보인 부분은 회담 성격 규정이었다. 남한측은 회담을 정부간 대화로 이해하였던 반면, 북한은 양측의 다각적인 정치인 대화 중 일부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북한측은 총리간 회담을 단순한 상봉이나 접촉의 표현을 통해 격하시키려 했으며, 회담장소도 제3국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회담진행절차 문제에 있어서도 남한측은 양측이 공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총리접촉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실무대표 접촉이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상대적으로 덜 세분화된 제안을 하였다.<sup>20)</sup> 실제로 회담의 제 문제에 있어서도 남한측이 3개분야로 구분된 의제를 제안한 데 반하여, 북한측은 단지 「북과 남의 각 분야에 걸쳐 합작하고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라는 단일의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토의를 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특히 북한이 해석하고 있는 ‘합작’과

20) 북한측의 제안에서는 수행원 구성이나 회담장 설치문제, 합의사항 처리 문제 등은 누락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 제안의 특징은 조속히 총리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실무대표접촉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항목을 따로 두고 있다.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p. 142 참조.

‘단결’, 그리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개념은 남한사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어의와 달리 사용되는 것이었다.<sup>21)</sup>

### (3) 종결기 상황

양측이 의제에 대한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점차로 북한측은 대화진전에 장애를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8차접촉(1980.5.22)에서 남한의 총리경질을 이유로 남한대표의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무대표접촉을 결렬시킨 사실은 북한의 본격적인 회담결렬의 전술사례가 되었다. 북한의 주장은 신임장에 서명한 총리가 경질되고, 남한에 총리서리가 임명되어 있으므로 회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북한은 9차접촉에서 그들의 대표 현준극을 회담에 불참시켰을 뿐 아니라, 2주 간격을 두고 개최하던 회담개최 관행을 연장시켜 10차회담을 예정보다 2개월 늦추었다. 또한 이후 11차회담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21) 남한측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 이들 개념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이해하는 “...합작은 남북의 광범위한 균중을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하는 것”이며, “단결이라는...의미는 남조선당국으로 하여금...聯共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자주적 평화통일」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을 몰아내고 ...남조선에 참다운 정권이 서면...북반부의 사회주의역량과...단합된 힘에 의해 성취되는 것”으로 본다. 양영식, 위의 책, pp. 147~148.

## 다. 적십자회담 재개상황

### (1) 준비기 상황

북한의 적십자회담 준비상황은 1984년에 이르러 8차 본회담 재개를 위해 개최된 예비접촉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77년 12월 이래 중단되어 온 남북간 접촉이 1984년 8월 북한의 수재물자 제공 이후 남한측의 촉구로 다시 재개되자, 북한측은 3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실무자 예비접촉을 우선 요구하였다.

예비접촉에서는 중단된 8차 본회담을 재개토록 한다는 원칙에 양측이 동의하고, 대화 의제, 장소, 대표단 구성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기존의 합의사항을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비접촉이 진행됨에 따라 북한측은 본회담 중단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객관적 정세가 변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보도진의 인원을 증가시키는 대신 수행원수를 줄이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회담장소도 평양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무리한 제의로 남한측을 자극하였다.<sup>22)</sup>

특히 8차 및 9차 회담기간동안 회담 재개를 촉하하는 예술공연을 서울과 평양에서 갖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는 적십자회담의 성격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그 중요성을 희석시키는 의제왜곡을 시도하였다.

22)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pp. 214~215 참조

한편 회담일정에 있어서 북한은 1984년 12월 중에 8차 본회담 개최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985년 1월 23일에 개최토록 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남한이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자 북한은 잇따라 동년 2월 1일 예정된 팀스피리트 훈련중단을 새로이 요구하였으며, 남한이 불응하자 그들이 제의한 8차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다.<sup>23)</sup> 이후 남한측이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본회담 개최를 제의하자, 북한은 5월 28일로 회담일정을 수정제의하고 서울회담에 응하였다.

## (2) 진행기 상황

1985년 5월 속개된 8차 본회담에서 북한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회담시간을 단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예비접촉 합의의제인 5개사항을 일괄적으로 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는 모든 의제가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왕래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이므로 여타의 의제는 부수적인 문제라는 입장을 내포하는 것이었다.<sup>24)</sup> 또한 북한은 예술공연단의 교환을 제의하였는데, 이는 회담의 초점

23) 북한이 회담을 거부한 이유는 전쟁을 준비중인 남한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1984년 팀스피리트 훈련기간 중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을 진행한 사례에 비추어 억지주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24) 이종률 북한적십자 회담 대표단장 발언 참조. 통일원, 「남북대화사료집」 제11권 (서울: 통일원, 1994), pp. 237~238.

을 희석시키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대남공세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차 회담에서 북한은 회담의제 논의에 있어서는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합의를 계속 주장하였으며, 회담의제적 문제로서 남한대표들에게 군사마스게임을 관람시켜 정치·군사적 행사를 배제키로 한 양측간 합의를 무시하였다. 특히 속개된 2일째 회의에서는 비공개 합의를 무시하고 회의를 공개적으로 이끌었으며, 회의의제에 대한 토의는 거부한 채 남한에 대한 비난만으로 회담을 공전시켰다.<sup>25)</sup>

### (3) 종결기 상황

재개된 적십자 본 회담의 중단은 남한에서 특별히 회담의 종결을 준비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었다. 즉 1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 후 개최된 10차 회담이 제2차 구정고향방문단 교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회담이었으므로 회담의 결과에 대한 남한사회의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회담의제 5개항의 일괄토의를 요구하면서도 오로지 자유왕래 문제만을 합의서 형식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결국 남한측이 제의한 1986년 구정 고향방문단 구성 문제도 거부되고 말았다. 이러한 북한의 결정은 남한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관계로 회담결렬의 실망도 가장 크게 되는 시점을 고의로

25)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 pp. 233~234.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며, 단지 북한이 남한과 합의한 내용은 11차회담 개최 일정 뿐이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11차회담도 팀 스피리트 훈련 중지 요구를 조건으로 중단시키고 말았다.

## 바. 경제회담

### (1) 준비기 상황

경제회담은 북한이 수재물자를 남한측에 제공한 이후 남한의 회담개최 제의를 북한이 수용함으로써 성사되었다. 북한은 정무원 부총리 김환 명의로 회담일정과 대표단 구성에 관한 서신을 남한에 보냈으며, 회담일정을 남한측이 수정 제의하자 별 이의없이 동의하였다. 대표단 문제에 있어서도 남한측이 2인의 경제계 대표를 추가하도록 제의한 데 대해 쉽게 동의하였다.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는 당시 북한측이 수재물자 제공에 관한 남한사회의 반응을 점검하고, 나아가 대남한 정부에 대한 북한의 명분우위 가능성을 확인·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회담개최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진행기 상황

1차 경제회담이 개최되자 남한은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회담을 실질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였다.<sup>26)</sup> 그러나 북한은 구체적인 합작

26) 남한은 회담의 의제를 남북간 교역문제와 경제협력 문제 등 2개로 나누어 제안하였으며, 교역품목의 구체적 열거와 거래방식, 수송문제, 관

과 물자교류에 대한 세부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회담의제는 하나로 만들어 제시하였는 바, 의제에는 경제회담 진행에 관한 3가지 기본원칙을 포함시켰다. 이는 첫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 준수, 둘째 쌍방의사 존중, 셋째 상호주의 원칙 존중 등이었다. 이외에 북한은 회담말미에 비공식적으로 남북 부총리간 접촉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회담과정에서 북한은 회담운영 절차와 일부 교류 가능 품목에 원만한 합의자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회담의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의자세를 보여 한국사회의 희망을 크게 부풀려 놓았다. 특히 남한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회담을 비공개로 하자는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기꺼이 동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85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2차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예정된 날짜(1984.12.5)로부터 5개월이 지난 1985년 5월에 가서야 재개에 동의하였다. 수차례에 걸친 남한의 회담재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불응하였던 북한은 남한의 제시日程을 수정·제의하는 형식을 거쳐 5월 17일 2차 회담을 개최토록 하였다. 2차 회담에서 북한은 그들이 이미 동의했던 「남북간 물자교류와 협력」에 관한 실질적 토의는 거부한 채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고위급 회담으로서의 「남북경제협조공동위원회」 구성을 새로이 주장하였다. 북한측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남한의 회담구체화 노력을 무산시키는 한편, 고위급회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

---

세문제, 대금결제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여 회담의 성격을 정치 회담과 달리 실무적 차원으로 규정하였다.

여 회담의 성격을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었다.

이후 3차 및 4차 회담에서 북한은 남한이 제의하는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두 일축하면서, 모든 문제는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도록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경제회담의 의미를 고의로 무시하려 하였다. 특히 3차 회담에서 북한은 남한측이 2차 회담시 제의한 무연탄 구매와 경의선 철도 연결 문제에 대한 확답을 요구받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구체적인 협의는 향후 공동위원회 內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대답으로 합의사항의 실천과정으로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 (3) 종결기 상황

공동위원회 구성문제를 주로 논의한 5차 회담(1985.11.20)에서 북한측은 새로이 최고책임자로부터의 권한 위임문제와 국호사용문제, 합의서명칭 문제 및 합의서 내용에서의 통일원칙 조항화 문제 등을 구실로 남한과의 갈등을 고조시켰다. 특히 북한은 진행되어 온 경제회담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上位의 格을 갖는 공동위원회 구성을 주장함으로써, 남북대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토의된 사항들의 실천가능성에 대해 지연과 견제를 위한 장치마련에 노력하였다. 결국 북한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회담을 철차 문제 및 정치쟁점 문제로 전환시켜 회담결렬을 시도하였으며, '86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경제회담을 완전히 중단시켰다.



## 사. 남북 국회회담 예비접촉

### (1) 준비기 상황

남북 국회회담 예비접촉은 적십자회담 및 경제회담 진행과 병행하여 북한이 남북한간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을 위한 양측 국회의원들간 회담을 요구(1985.4.9)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남북 국회회담을 요구한 북한측에 대하여 남한측은 의제 및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개최하도록 다시 제의하였으며, 북한은 이를 수락하였다.

### (2) 진행기 상황

양측간 합의로 성사된 예비접촉은 처음에는 국회회담 절차문제에 관하여 대부분 쉽게 합의에 도달하였다. 다만 의제문제에 있어서 북한측이 요구한 불가침선언 문제가 합의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바, 이는 양 정부 당국간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점이 남한측 인식이었다.<sup>27)</sup> 북한측은 「불가침선언」이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동시에 병행되고 있는 적십자 및 경제회담의 진전에 도움을 줄 것이

27) 북한에 보낸 이재형 국회의장 서한 참조. 국토통일원, 「남북대화 백서」, pp. 296~298.

라는 논리를 내세웠다.<sup>28)</sup> 그러나 북한측의 주장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무를 지니는 불가침선언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양 정부당국에 일임한다는 논지가 바탕에 깔려 있었으며, 다만 회담의 제로 불가침선언 문제를 주장함으로써 명분의 확보와 남한정부의 대표성을 훼손하려는 회담외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다.

회담과정에서 나타난 양측의 의견차이는 1차회담은 물론 2차회담에서도 간격이 좁혀지지 못하였다. 이에 북한측은 「남과 북사이에서 긴장을 완화하며, 조국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제를 새로 제의하였는데, 이 역시 남한측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무의미한 의제였다.

공동선언 문제에 더하여 수석대표의 級을 결정하는 문제도 양측간에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북한측은 수석대표를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으로 하자는 주장을 통해 회담의 형식을 격상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며, 남한은 상임위원장 이상의 대표를 신축적으로 선임하여 회담의 실질성을 중시하자는 태도를 취하였다. 즉 회담의 진행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노력에 걸맞는 대표의 선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 (3) 종결기 상황

남북간 국회회담 예비접촉은 '86팀스피리트 훈련 실시를 구실

28) 위의 책, p. 301.

로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3차 접촉을 무산시킴으로써 결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북한측이 회담의 진전에 성의를 갖기보다는 회담의 형식적 진행에 따른 선전적 차원의 주도권 확보에 더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 2. 단계별 협상전술 사례<sup>29)</sup>

### 가. 준비기의 협상전술

#### (1) 적십자회담에서 사용된 협상전술

**Toughness 전술(분위기 제압 전술 혹은 주도권확보 전술):** 북한은 남한에 비해 비교우위의 적극적인 회담자세를 선택함으로써 회담진행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는 회담의제 제안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 내용을 먼저 제시한 점과, 회담일정을 앞당김으로써 그들의 적극성을 과시하

29) 보편적 전술사례의 범주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북한의 협상전술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료와 전술의 일반용례를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함께 이용하였다. 대상이 된 자료는 허만호 외, 「북한의 군사협상전략과 기술분석 및 대비방향」(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3); 양영식, 「북한의 협상전술」(서울: 국토통일원, 1990); C. Turner. Joy, *How Communists Negotiate*,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역), 「공산측의 협상태도」(서울: 통일원, 1993); 강인덕, 「북한의 남북대화 전략저술 평가 및 전망」(서울: 통일원, 1990); 문광진, 「북한식 협상행태의 변화전망과 대북협상원칙」, 「국방논집」, 제26호 여름 (1994); David Churchaman, *Negotiation Tactics* (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3) 등이다.

러 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또한 회담운영절차 논의 우선이라는 회담진행의 상식을 무시하고 예비회담에서 미리 본회담의제 논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회담분위기 조성시도:** 북한은 회담의제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상적인 회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비정상적인 회담진행을 먼저 진행하였는 바, 이러한 회담자세는 회담환경을 최대한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뒤 협상의제를 다루려는 고도로 계산된 협상전술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나타난 사례로는 1~5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회담진행에 필요한 의제 논의보다 통일의 당위성 및 북한의 적극적 대화자세 등을 먼저 선전함으로써 회담주도권 확보는 물론 대외 선전효과를 높이려 한 바 있다. 또한 남한에 대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양보함과 동시에 회담의 의 문제들을 거론함으로써 남한측의 의사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 하기도 하였다.

**포괄적 의제 제시를 통해 북한의 관대한 자세 과시:** 이산가족 범위에 친우를 포함시킬것을 요구하여 이산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려 시도하려 했는데, 이는 절차의 합의를 어렵게 하여 협상상대인 남한을 조급하게 만드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의제 추가 전술:** 이산가족 범위에 친우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한 것은 이산가족 悲願을 해결하자는 목적과 달리 대남통일

전선전술을 추진하기 위한 대남공세 목적의 환경조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이중전술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문위원제도를 추가로 제의하여 적십자회담을 그들이 주장한 정치협상회의로 발전시킬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도 하였다.

**브링크맨 쉽 전술:** 북한은 회담내용 중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지라도 이를 까다롭게 물고 늘어짐으로써 남한의 양보를 요구하는 전술을 사용하였다. 이의 사례로는 이미 합의된 본회담일정을 넘겨버리면서까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회담지원 인원 증원을 반대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남한체제 교란 가능한 회담의제 관철 시도:** 북한이 협상의제로 요해해설위원 제도 삽입을 요구하고, 5개항의 의제 중 이산가족 자유왕래를 우선 강조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남한내 반공법 등의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전술이다.

## (2) 남북조절위원회의 공동위원장 회의

**비공개 대화시도:** 적십자회담 대표인 김덕현은 남한측 적십자회담대표인 정홍진과의 비공식 대화를 통해 합의사항을 도출해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비공식 대화를 통해 그들이 추진하는 대화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기록 안남기기 전술로 이해할 수 있다.

**선례나 既합의사항 재해석:**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통일3원칙의 내용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장의 정당성을 남한측이 인정하도록강요하였다.

**전제조건 제시:** 전제조건 제시전술은 회담에 임하는 남한이 그 조건들의 부당성을 설득시켜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만드는 전술이라 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먼저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남한이 역제시하여야 할 전제조건 부당성의 논리를 그들이 필요한 시기까지 부정하기만 하면 되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 하였다. 따라서 전제조건 설정은 남한이 쉽게 논리적 역공세를 취할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무리한 수준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전술은 회담의 분위기를 북한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 데 효과가 있다.

**연계전술(Linkage):** 의제에 전제조건을 다는 것과 같이 북한은 여러가지 주장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로는 통일 3원칙의 채택을 주장하는 가운데 남한정부의 공산주의 활동 허용 요구 및 미군 철수 주장 등의 추가 요구를 연결시킨 사실을 들 수 있다.

### (3) 남북체육회담

**최종기한 전술(Deadline):** 상대인 남한에게 그들의 제안을 겁

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유리한 합의를 모색하는 전술로서, 실제의 경우 회담시한을 급박하게 설정하여 남한이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지 못하게 하는 한편, 양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 (4)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

**상대(남한정부) 무시전술:** 북한은 각계 민간인사들을 망라하는 가운데 남한정부의 국무총리를 포함시켜 소위 상총부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남북회담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남한사회 내에서 남한정부가 갖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남북대화에서의 사전 주도권 확보는 물론 대외선전 차원의 명분확보에도 유리한 소재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북한은 총리간 대화에서 공식적인 성격을 배제하기 위하여 회담의 명칭도 단순히 총리간 상봉이나 접촉으로 표현하였으며, 회담장소 선택 과정에서는 제3국을 거부하여 회담의 공식적 성격을 배제하려 하였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의제 제시 전술:** 포괄적 회담의제 제시 전술의 일환으로 복수의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단일의제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토의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회담제의를 따른 북한의 대남평화 자세를 선전하기 위한 명분 축적의 의도와 함께, 회담의 진전에 필요한 부분을

도외시하여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사전 배제하려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모호한 회담의제를 제안한 의도에는 남한내 비정부세력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리회담 성사라는 구실을 통해 정부의 세력과의 대화도 성사시켜 보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는 남한사회에 혼란을 유도하려는 자세로 이해된다.

#### (5) 적십자회담 재개 상황

**전례 합의사항 이용 전술:** 회담 진행방향의 사전 제한을 목적으로 과거 합의된 사항을 존중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대자극 전술:** 북한은 이미 합의된 서울회담 순번을 무시하고 본회담 장소로 평양을 거른함으로써 남한을 자극하였는데, 이는 평양회담 제의를 취소하는 대가로 다른 문제에서 남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협상의제 추가 전술:** 북한이 예술공연을 이산가족문제에 더하여 추가로 제안한 의도는 기존의 이산가족 문제해결이라는 협상의제의 중요성을 희석시키려는 것이었다.

**연계전술:** 북한은 회담일정을 지연시킴으로써 팀스피리트 훈련 일정과 적십자회담 일정을 연결시키고, 회담환경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여 훈련중지를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은 회담일정 연기 및 수정제의로 회담주도권 확보를 시도하였고, 대남평화공세를 선전하기 위한 의도로 보도진의 수를 늘리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 (6) 경제회담

**거짓양보:** 북한이 남한의 회담개최 제의를 수용하고,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도 남한이 제안한 2인의 재계대표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쉽게 동의한 것은 거짓양보 전술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양보전술은 회담성사의 필요성과 이후 회담결렬의 책임 전가를 위한 이율배반적인 회담전술로서, 북한이 남한의 제의에 대해 거부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7)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상대 양보를 얻어내기 쉬운 것부터 의제로 제안하는(One Text Precedur) 전술:** 「불가침에 관한 공동 선언」이라는 대남평화공세 소재를 이용하여 남한이 우선 협상에 응하게 유도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는 남한정부의 위상을 훼손하고, 정치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북한이 의도하는 정치협상회의 성사 가능성을 높히려는 의도를 내포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 나. 진행기의 협상전술

### (1) 적십자회담

**거짓 양보와 회담성격 변질 시도:** 적십자회담을 재개하는데 있어서 북한은 남한과 5개항의 협상의제에 합의하였다. 이는 북한이 이산가족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선전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남한을 회담의제에 보다 깊이 연루시키려는 전술이었던 바, 실제로 북한은 1차와 2차회담에서 사회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이산가족찾기 문제보다 통일문제와 외세 배척주장에 더 비중을 두으로써 적십자회담의 성격을 정치적인 회담으로 변질시키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결조건 제시 전술로 주도권 확보 시도 및 대남한 명분우위 모색:** 북한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회담재개 선결조건으로 4개항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남한내 사회환경 개선 요구와 적십자 요해해설위원 파견, 본인의 요구에 따르는 심인방법 주장, 남한내 각지역에 적십자대표부 설치 등의 제안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성이 낮은 것이었으나, 북한은 명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회담의 정치적 성격 강조 및 회담 중단 가능성 제고:** 북한이

제시한 선결조건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남한이 이를 수용하거나 혹은 북한과 논의만을 하는 경우에도 회담의 관심을 남북한간 정치상황으로 옮길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은 선결조건 제시를 통해 남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회담중단 구실과 함께, 대외적으로 회담중단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킬 수 있는 그들만의 선전소재 마련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전제조건 반복 주장:** 전제조건 반복 주장은 회담의 진전을 방해하는 한편, 이를 통해 남한으로 하여금 북한의 양보 가능성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려는 전술이었다.

## (2)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

**회담절차 무시:** 북한이 의제 접근에서의 조급함을 과시하여 명분 우위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자세는 추후 의제 범위 결정과정에서 명분 우위를 바탕으로 최대한 버티기 전술이나 비타협 전술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북한이 절차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담의 진전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적게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레이용 및 건포도 뽑아먹기 전술:**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통일 3원칙의 부분적 재해석을 통하여 남한의 양보를 요구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원칙합의 전술:** 북한은 양측이 합의한 남북공동성명을 근거로 남북간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자는 주장과 함께, 남북한간 군사대치상태 해소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남한의 여하한 주장도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한 신뢰구축 전제하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는 의제만을 고집하는(Cherry-picking) 전술:** 북한은 남북한간 대치상태를 중시한다고 하여 군사문제만을 다루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군사대표자 회의를 제의하였다.

**무리한 제안을 통하여 부분적 양보를 전제로하는 「바자르」 식 흥정전술:**<sup>30)</sup> 북한은 남북간 군사대치상태의 해결이 남북대화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고, 환경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북간 5개항의 군사문제를 다루도록 제안하였다.

**통신시설 불비나 관행적 행사의 취소:** 북한은 남한의 대표에게 사전 비협조적 강제성을 표시한다. 실제로 북한은 관행적이었던 남한대표의 김일성 면담을 취소하고, 교통수단 사용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였다.

30) Haggling 전술과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나 제안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제안을 깎거나 양보범위를 극대화하려는 전술이다. 특히 협상을 마무리 하기 위한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David Churchman, *Negotiation Tactics*, p. 29.

**상대방 무시전술과 합의사항 무시전술:** 북한은 비공개가 관행인 회담진행과정을 일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명분축적에 유리한 부분을 대외 선전 소재로 이용하였다.

### (3) 평양 탁구선수권 대회 대비 체육회담

**최초대안을 회담종결시까지 견지하는 전술:** 북한은 남한의 정당한 대회 참가권리를 남북한 단일팀 구성시에만 인정하도록 하는 주장을 시종 견지하였는데,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민족주의라는 명분하에 단일팀 구성 실패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키고, 남한의 대회참가 봉쇄의 명분을 축적하려 한 의도가 있었다.

### (4)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

**상대무시전술:** 이 전술은 북한이 남한 총리의 권위를 무시하기 위하여 회담중요성 격하 의도로 사용하였다. 북한은 총리회담을 단순히 양측 총리간 상봉이나 접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담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과도기적 남한정부의 정치적 권위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포괄적 회담의제 제의를 통한 모호성 제고 전술:** 포괄적인 회담의제 제안으로 양측간 실무접촉의 필요성을 야기시켜 실질적인 양측총리 접촉은 지연시켰다.

**회담의제 및 사용되는 용어의 이중적 해석을 허용하는 Signals 전술(비단벌레식 전술):** 북한은 회담에서 ‘합작’, ‘단결’, ‘자주적 평화통일’ 등 남북한 사회에서 공히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되, 그들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남한과의 합의는 유도하고, 실질적인 대화진전은 방해하는 이중 전술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회담결과에 대한 북한의 자의적 해석은 선전소재로 이용함과 동시에 남한내 반정부세력에 활동근거로 제공함으로써 대남공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5) 적십자회담 재개 경우

**연계전술:** 회담준비기에 북한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연계양식과 달리, 재개된 적십자회담에서는 의제내용 중 일부의제에 중요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의제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북한은 회담의제 5개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후, 이중 하나인 자유왕래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이와 관련되는 남한의 법률 및 제도적 환경의 개선 문제를 회담과정에 연계시키려고 하였다.

**새로운 의제 추가 전술:** 북한은 예술공연단 교환을 새로이 제안하여 적십자회담 성격을 변질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과 폐쇄적인 북한체제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담성사의 현실적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산가족문제만을 다루는 적십자회담의 성격을 문화측면을 포함하는 광의적 회담으로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살라미 전술:** 북한은 이산가족 자유왕래를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 예술공연단 교환을 제의하여 남한의 동의를 얻어냈다. 남한으로서는 교착된 회담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예술공연단 교환에 합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답보상태가 지속되었다.

**합의사항 무시전술:** 정치적인 행사를 회담에 연결시키지 않도록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군사매스게임에 남한대표를 참석하도록 하여 남한 대표단을 곤란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북한의 합의사항 무시전술은 회담에 대한 남한의 적극적 태도 정도를 우회적으로 측정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남한의 인내정도와 회담에 임하는 태도 사이의 상관성 측정을 통해 그들의 주장(요구)에 있어서 무리(억지) 범위를 결정하는 데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발언권 독점:** 회의장에서는 남한대표단이 매스게임 참관을 거부하고 퇴장한 사실을 비난하는 가운데, 발언권을 독점하는 비상식적인 대화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발언권 독점은 상대방을 위축시켜 회담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수법이었다.

## (6) 경제회담

**거짓양보 전술:** 북한은 구체적인 회담내용으로 물자교류와 경제협력 문제를 다루는 데 동의함으로써 회담에 임하는 자세는 성실한 것으로 위장하였으나, 협상의제는 포괄적인 하나의 의제만을 제시함으로써 회담의 진전을 전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원칙합의 시도전술:** 북한은 협상의제에 통일 3대원칙 준수, 쌍방의사존중, 상호주의 원칙 등 3가지의 기본원칙을 삽입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합의하는 경우 경제회담은 구태의연한 정치회담의 범주 안에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지연전술:**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일정과 연계시켜 2차회담을 연기시켰으며, 이후 2차회담에서는 새로이 부총리회담을 제안하여 경제회담의 구체적 성격을 정치적 회담으로서의 형식 중심 형태로 변화시키려 하였다. 한편 3차와 4차회담에서는 남한이 제의하는 내용을 무시하고, 모든 회담내용은 공동위원회를 통해 다루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회담진행을 지연시켰다.

**합의와 이행의 분리 전술:** 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는 가운데 회담내용의 구체적 실천문제는 조직이 구성된 이후 이를 통해 다루자는 제안으로 경제협력과 교류 실천을 고의



적으로 방해하였다. 이러한 전술은 북한이 선택적인 합의와 지연 혹은 거부를 가능하게 하는 전술이었으며, 다른 형태로 표현한다면 'Cherry Picking' 전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7) 남북 국회회담 예비접촉

**의제 연계전술:** 북한은 불가침선언을 위한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국회회담이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이기도 하였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제 주장:** 명분축적에 유리한 불가침선언문제를 협상내용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협상의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북한이 제시한 의제는 「남과북 사이에 긴장을 완화하며, 조국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라는 장황하고 추상적인 단일의제였다.

**정치협상 유도 혹은 회담성격변화 시도 전술:** 북한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을 대표로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여 국회회담의 범위 확대를 통한 남북간 정치인협상 성사를 모색하였다.

## 다. 종결기의 협상전술

### (1) 적십자회담

**요구조건 강화를 통한 회담결렬 구실 마련 및 책임전가 전술:** 북한은 반공법 철폐와 정부의 반공정책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한내 환경개선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3가지 회담재개 조건을 제시하였다. 재개조건은 남한측 대표 개편요구, 남한내 반정부 세력 탄압중지 요구 등 비정치적 회담인 적십자회담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는 회담을 결렬시키는 데 필요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였다. 또한 이러한 의도는 남한의 수용 거부를 빌미로 회담결렬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합의파기 및 무시전술:** 북한은 합의관행에 따라 서울이 8차 본 회담 장소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평양에서 8차 회담을 개최하자고 주장하였다.

**제안반복 전술 및 최종제안 제시전술:** 회담과정에서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조건 개선 주장을 반복하였다. 이는 시간지연 목적 외에도 남한과의 대화 지속을 거부하기 위한 최종 제안 제시 및 견지전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2) 남북조절위원회의

**제안반복 전술 및 김빠기 전술:** 북한은 종래 주장한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남한에 확인시키고자 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의의 협상종결과정에서 북한이 제안을 반복한 경우는 시간지연전술이라기 보다는 남한의 협상지속 기대에 대한 김빠기 전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대안 제시전술:** 북한은 대화종결을 선언하는 가운데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포기과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확대된 남북조절위원회의를 요구하였다. 이는 회담결렬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키는 목적으로도 이해된다.

**상대대표 무시 혹은 모욕주기 전술:** 남한측 대표로 부총리가 참석한 부위원장회의에서 회담진행 도중 북한측은 그들의 대표인 유장식을 격이 낮은 조명식으로 교체하여 회담의 중요도를 낮추어 버림과 동시에, 남한대표에 대해 모욕감을 주어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 (3) 체육회담

**시간지연전술:** 남한이 대회에 참가할 의사를 계속적으로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은 대회 대진표 추점일을 이틀 앞 둔 시점에서

개최된 4차회담에서도 과거 주장만을 반복하여 제한된 시간을 모두 소비하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처음부터 최종제안을 제기하는 비타협 전술:** 북한은 남한의 대회참가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남북단일팀 구성을 대회참가 허용 절차로 삼겠다는 주장을 시종일관 견지함으로써 비상식적 대화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대화자세는 북한의 대화의도가 남한의 대회참가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남한측이 먼저 회담거부나 회담중단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 (4)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

**이의제기 전술:** 북한은 남한에서 총리가 경질되어 총리서리가 임명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남한측의 회담대표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는 남한의 양보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협상종결의 시점 및 중단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지연전술 혹은 김빠기 전술:** 북한은 회담개최를 지연시켰는바, 이는 회담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남한의 기대를 무산시켜 대화의욕을 꺾는 한편, 회담중단의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술이었다.

### (5) 적십자회담 재개 경우

**특정내용 강조전술(One-Text Procedure):** ‘특정내용 강조’ 전술은 여러의제 중 그들의 이해에 부합되는 부분만 추려내어 자의적 해석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로서, 북한은 이산가족 자유왕래를 문서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북한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리한 부분만을 부분적으로 떼어내어 한 문제씩 남한의 양보를 도출하려 시도하였다.

**시간효과 극대화 전술 혹은 기습적인 회담중단 결정으로 중단효과 극대화 시도:** 회담이 교착상태에 이르게 된 10차회담 당시는 이산가족 상호방문이 이루어진 직후로서 남한사회에서 적십자회담에 대한 기대가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회담 중단에 따른 남한정부의 대국민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었으며, 북한은 이러한 시점을 이용하여 남한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 하였다.

### (6) 경제회담

**새로운 문제제기를 통한 갈등 증대전술:** 북한은 회담대표들이 위임받은 권한의 명시문제, 국호사용문제, 합의서 명칭문제 및 통일원칙 조항화 문제들을 새로이 제기하거나 재거론함으로써 회담진행에 새로운 장애를 만들었다.

여러분야에 걸쳐 전제조건 연계시도와 합의기피 모색: 북한은 공동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회담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토의되어 온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의 기능과 연계시킴으로써, 남한의 양보를 요구하는 한편 회담진전을 방해하였다. 또한 회담진행을 팀스피리트 훈련과 연계함으로써 중단의 구실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7)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연계전술: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과 회담진행을 연결시켜 회담중단의 구실을 만들었다.

### 3. 공세적 회담에서의 북한협상전술 특성분석

제Ⅱ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협상 사례에서 준비기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반원칙을 합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협상자는 협상의제, 협상절차, 협상분위기 조성 등을 대상으로 협상진행에 필요한 규범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합의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공세적 전략 목표를 갖는 협상자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원칙을 만들기 위한 전술을 선택하게 된다.

준비기의 협상진행 과정에서 북한이 사용한 협상전술을 이러한 명제적 가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로 언급할 수 있는 특징은 회담내용과 거리가 먼 제안을 제시하여 대화진행보다는 선전차원에 더 관심을 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통일의 당위성 강조, 회담의 규칙을 결정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협상의제 논의 주장, 혹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의제의 제시 전술 사용 등으로 뒷받침된다. 또한 이러한 특징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북한의 협상태도로는 회담 시작에 앞서 협상의제와는 관련성이 약한 당위적 사실을 선점적으로 언급하여 대외선전효과는 제고하되, 회담의 진행은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협상진행을 위한 일반원칙 합의를 모색함에 있어서 의제 연계나 추가제안 등을 통하여 회담의 성격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대화진행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적십자회담에서의 자문위원회 제기, 의제 요해해설위원회 제기, 이산가족 자유왕래 우선 강조, 예술단 교환공연 제안 등의 전술적 사례가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통일3원칙의 이행과 미군철수 주장의 연계시도는 연계전술의 일환으로 역시 북한의 대화의도가 협상의제의 합의도출에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셋째, 상대를 무시하거나 자극하는 과격한 방법을 통하여 회담 분위기를 자기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유도한다는 사실이다. 남북총리회담 제안을 민간인사간 대화 제의와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려 한 사실이나,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국회회담 개최 사유로 이용하려 했던 사실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이다.

위와 같이 북한이 추진하는 공세적 협상에서의 준비기 협상전술의 특징은 북한의 양보없이 남한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북한의 전술은 지나치게 강경하여 남한으로서는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이는 북한이 공세적 협상의 준비기에서 남한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방법 외에는 대화진전을 위한 어떠한 일반원칙 합의 방법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협상전술은 북한이 타협과 양보를 통한 협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데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며, 결과적으로는 남북간 협상진행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간 회담진행에 따라 상호 의사가 교환되는 과정인 본회담 진행기의 북한 협상전술은 대체로 준비기의 전술과 연결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협상의 진전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대남전략 차원의 공세적 수단으로 협상을 사용하려 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진행기 북한협상전술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북한은 협상의 일반적 양상인 상호 타협과 양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남한만의 의제전환만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북한은 남한의 협상환경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의 주장만을 고수하여 선결조건 제시 전술, 건포도 뽑아먹기 전술 및 살라미 전술, 회담 비협조, 최초제안의 불양보, 발언권 독점 등의 전술을 각 회담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타협적 전술사례들이 위에 적은 특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북한 스스로는 협상진전에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제전환이라는 진행기의 협상성격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즉 의제전환 과정으로서 진행기에 북한은 그들의 협상위치와 입장에 대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자세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원칙의 합의 요구 및 거짓양보 전술을 통해 남한의 협상 공간 제약 시도, 합의와 이행의 분리, 합의기피나 합의사항 무시 등을 시도한다.

셋째, 진행기를 통해 북한은 남한의 능력과 대북태도를 평가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협상의적 목적은 북한의 대남 공세전략 추진과 연관된 것으로 거짓정보 제공, 고의적 상대무시, 합의 내용의 이중적 해석, 양보 및 타협 거부 등의 전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북한은 협상을 수단화하여 남한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며, 따라서 남북한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의제를 수정하는 의제전환보다 상호 대결 국면으로 유도하여 적절한 수준의 갈등을 유지하는 협상을 진행한다.

한편 공세적 협상의 종결기 북한협상전술은 비타협과 협상중단 불사양의 강경전술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이 사용한 협상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바, 북한은 합의기피와 합의이행 거부, 상대무시, 타조건과의 연계시도 등의 전술을 통해 회담진전을 방해하고 회담중단을 유도하였다. 또한 회담재개조건과 연계시킨 최종대안 제시 전술, 양보없는 제안의 반복전술, 불합리한 해석을 통한 이의제기, 새로운 의제추가 전술 등은 남한에 회담중단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전술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종결기 협상전술은 그들이 공세적 협상에서 목

적으로 하는 대남공세의 직접적인 수단이라기 보다는, 이미 진행해 온 공세적 협상을 향후 재개될 새로운 협상과 단절하도록 만드는 매개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성격은 북한의 공세적 협상이 남북한간 관계를 지속시키는 문제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협상시점에서의 남북한간 대결상황에 근거하는 단기적 대남공세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데서 연유한다.

결국 공세적 협상에서 북한 협상전술은 단계별로 형태적 차이를 보이나, 대남전략 수단이라는 협상외적 목적 측면에서는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북한의 협상전술이 협상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 공세전술 중심으로 선택되는 이유는 북한의 협상이익이 남한과의 합의성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하겠다.<sup>31)</sup>

---

31) 김도태, 「남북한 협상행태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86~89 참조.

## 제 V 장 방어적 회담에서의 협상전술

### 1. 북한의 협상진행 과정

#### 가.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 (1) 준비기 상황

1984년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회담의 경우 북한 측은 대회참가 선수명단 제출 기일 2개월전에 회담을 제의하였다. 당시의 상황은 버마 아웅산 사건으로 세계의 여론이 북한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모아져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회담의 성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남북한 사이에 고조된 긴장 관계를 축소하기 위한 방향에서 남한이 북한의 회담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성사되었다.<sup>1)</sup> 특히, 회담일정은 남한측이 제안한 4월 9일을 북한이 수용함으로써 성사되었다.

##### (2) 진행기 상황

1984년 4월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해 다시 개최된 남북한간 체육회담은 북한으로서는 참가 거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

1) 통일원, 「남북체육회담 결과보고(종합)」 (서울: 통일원, 1993), p. 22 참조.

회담이었다. 회담은 3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버마 아웅산 사건과 신상옥·최은희 납치사건을 규명하려는 한국의 입장과 북한에 적대적인 국제여론 반전의 기회포착 및 올림픽대회 불참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한의 협상의도가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협상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차 회담에서 북한측은 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남북한간 체육교류문제를 회담의제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남한측이 회의 벽두에 버마사건과 최·신 양인의 납치문제를 거론하자 북한측은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회담대표단을 철수시키는 강경자세를 보였다.<sup>2)</sup>

남한측의 2차례에 걸친 회담재개 촉구가 있는 후에 열린 2차 회담에서도 북한측은 버마사건 등을 남한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회담을 공전시켰다. 다만 북한측은 회담의제와 관련 1차 회담의 제안내용을 세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자세를 취하였다.<sup>3)</sup>

### (3) 종결기 상황

3차 회담에서 북한은 1차와 2차 회담의 공전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남한에 대해 단일팀 구성을 방해한 데 대

2) 위의 책, pp. 21~22.

3) 북한측은 회담장에서 퇴장할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지휘부로부터 오는 메모에 의해 회담을 계속하였다. 또한 북한의 제안내용은 남한의 제안과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남북회담의 지속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위의 책, pp. 63~66.

한 사과와 향후 회담에 정치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회담진전의 두가지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sup>4)</sup> 또한 이러한 전제조건을 남한이 수락하지 않는 한, 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특히 이후 북한은 4차 회담을 거부하는 가운데, 올림픽 불참을 발표하면서 올림픽 개별참가가 민족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체육회담 실패가 불참이유의 하나인 것으로 위장하였다.<sup>5)</sup>

## 나. 로잔느 체육회담

### (1) 준비기 상황

북한은 서울올림픽이 두개의 조선정책이라는 대남 비난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이유로 IOC에 대해 올림픽 개최지를 변경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sup>6)</sup> 이에 IOC는 남북한간 체육회담 중재를 결정하고, 1985년 2월 양측에 대해 스포츠 교류관계 및 올림픽 개최문제를 안건으로 회담개최를 제의하였다.

4) 위의 책, p. 84; 통일원, 「남북대화백서」 p. 201.

5) 북한의 회담의도는 올림픽 불참명분을 마련하고, 비마사건으로 악화된 세계여론에 대해 그 책임이 북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기회로 체육회담을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는 체육회담에서 강경한 자세로 비마사건을 언급한 남한을 비난함으로써 다시 남한이 이를 언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6) 통일원, 「남북대화백서」 p. 305 참조.

IOC의 결정에 대해 북한은 즉각적으로는 체육회담을 거부하였으나, 이후 1985년 7월 태도를 바꾸어 회담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변화는 현실적으로 그들의 주장이 무리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였으며, 나아가 그들이 올림픽 분할개최를 통해 대내적으로 주민의 사회통합 의식 고취와 대외적으로 고립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 (2) 진행기 상황

로잔느 체육회담은 1985년 10월부터 87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1차 체육회담에서 북한은 남한만의 올림픽개최가 부당함을 제기하고, 남한이 올림픽 종목의 절반을 할양하는 한편, 개폐회식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개최하도록 제안하였다.<sup>7)</sup> 선수단 구성은 단일팀을 주장하였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 개최에 대한 공동관리를 제의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올림픽 개최장소와 관련하여 보다 강경하였으며, 공동개최의 내용도 단일팀 구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남한이 수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2차 회담에서 IOC는 공동주최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나, 이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는 1차 회담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으며, 남북한 단일팀 구성도 IOC의 주재하에

7) 통일원, 「남북체육회담결과보고(종합)」, p. 108 참조.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결국 회담은 3차 회담 개최사실만을 합의하고 말았다.

3차 회담에서 북한은 요구 종목의 수를 줄이고, 단일팀 구성문제를 논의하지 않음으로써 회담에 성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변화하였다. 남한측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하여 4개종목의 예선과 결선 경기 전부 혹은 일부를 할애하기로 양보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평양올림픽이라는 호칭의 사용과 함께 별도의 대회조직을 구성한다는 주장을 추가함으로써 남한과의 대화를 또다시 교착상태로 이끌었다.<sup>9)</sup>

3차 회담에 이르기 까지 남한과 IOC에 대해 강경자세를 견지하여 회담을 교착 상태로 유도한 북한은 4차 회담에 이르러서는 인구비례에 입각하여 8개종목을 북한에 배정할 것을 요구하여 그들의 자세를 더욱 경직시켰다.<sup>10)</sup> 특히 북한은 IOC의 중재안에 대해 만족할 수 없게 되자 IOC에 대한 회신에서, 탁구와 양궁 등 2개 종목의 북한 할애 제안에는 동의하되 종목수를 늘려주는 문제와 대회명칭, 기구, 운영 등의 문제를 계속 논의하도록 요구하여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였다.

---

8) 북한은 할애종목 수를 11개에서 8개로 줄이고, 새롭게 서울과 평양에서 문화행사를 함께 개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회담을 지속시키려는 자세만을 보인것으로 이해된다. 위의 책, p. 114.

9) 위의 책, p. 114.

10) 위의 책, p. 133.

### (3) 종결기 상황

4차 회담 이후 북한은 5차 회담을 성사시킨다는 조건으로 그들의 요구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보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요구종목의 수를 줄이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요구내용으로 탁구와 양궁 외에 축구와 여자배구 등 인기종목의 전경기와 사이클 대신 타경기를 제시하였고, 대회명칭, 개폐회식, 방영권 문제 등을 논의하도록 하여 남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계속 주장하였다. 결국 IOC가 이를 거부하자 북한은 남한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5차 회담 이전 남북간 대화를 통해 견해차이를 줄이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본방도라는 주장을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더이상 그들의 주장이 IOC와 국제여론을 설득하기 어렵게 되자 대외적으로 그들이 대화에 적극적이었음을 선전할 수 있는 소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회담 결렬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 다.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 (1) 준비기 상황

1988년 12월 북한은 북경 아시안게임(1990.9 개최예정)에 출전할 남북한단일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양측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는 5인의 대표단이 1989년 2월 판문점에서 만날 것



을 제의하였다. 이에 남한측은 일정만을 3월 9일로 수정한 채 북한의 제안에 동의하여 양측간 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sup>11)</sup>

## (2) 진행기 상황

19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난 후 1989년 3월부터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에서는 1990년 2월까지 무려 9차례의 본회담과 6차례의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회담과정에서 정치적인 발언이 자제되고 회담관련 의제들에 대한 토의만이 이루어져 양측의 협상자세 변화를 볼 수 있는 사례였다. 양측은 비교적 합리적인 협상안을 준비하였고, 이에 따라 단일팀구성에 필요한 사항인 호칭, 단기, 단가는 물론 선수단의 합동훈련 일정과 선수단 구성시기, 공동위원회 구성원칙 등에서 상당한 합의를 이루었다.<sup>12)</sup>

양측간 차이를 보인 사항은 선수선발과정의 공개여부와 선수 및 임원 배정문제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남한의 공개성과 공정성 주장에 대해 북한은 비공개와 비율배분을 주장하였다. 특히 북한은 그들이 우월한 종목에 대해서는 경쟁선발을 하고, 열세인 종

11) 이미 수차례의 체육회담을 남한과 가진 바 있는 북한은 동 회담의 성격과 한계성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먼저 회담을 제의하는 것 만으로도 회담의 주도권과 대의선전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히 회담 일정을 조급하지 않게 1년 9개월 앞서 제의함으로써 현실적 제안임을 선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 위의 책, p. 144.

목에 대해서는 균등배분하자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여 무리한 주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선수단 단장문제에 있어서는 공동단장제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경기력의 열세를 남북간 우열관계로 연결시키지 않으려는 북한의 경쟁적 심리를 보여주는 주장이기도 하다.

### (3) 종결기 상황

9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던 남북간 회담은 의외의 부분에서 결렬되었는 바, 남한이 요구하는 합의사항 이행보장에 대한 북한의 거부가 직접적으로 회담을 결렬시키는 원인이 되었다.<sup>13)</sup> 북한측은 남북한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 이후 발생하는 모든 업무는 공동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측은 합의사항 이행보장을 요구함으로써, 단일팀 및 공동위원회 구성 합의가 남한의 아시안게임 참가에 장애가 될 가능성을 불식하려 하였다. 이러한 남한의 우려는 북한의 일관적 협상행태에 대한 이해로부터 나온 것으로, 실제로 북한은 제9차회담에서 남북한간 준수해야 할 회담원칙 중의 하나로 “남북 양측이 반드시 단일팀으로만 북경대회에 참가할 것을 명시하

13) 남한은 4차 회담에서 합의사항 이행보장장치(부칙 및 4개의 부속합의서) 토의를 강조하였으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를 보장장치가 아닌 제도장치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합의사항 이행 보장장치 문제는 7차, 8차, 9차 회담에 걸쳐 논의의 주된 관심사항이 되었으며, 북한은 남한이 회담결렬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회담을 중단시켰다. 위의 책, pp. 201~220 참조.

자”는 주장을 하여 남한의 대회참가 봉쇄가 그들의 주요한 회담 의도임을 간접적으로 내보였다.<sup>14)</sup>

## 라. 남북고위급회담

### (1) 준비기 상황

남북고위급회담은 1988년 12월 강영훈 총리가 「남북고위당국자 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이 연형묵 정무원 총리 명의로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다시 제의함으로써 성사되었다. 이에 남북한은 1989년 2월부터 1990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예비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절차와 의제 결정을 위한 예비회담은 1차 회담에서부터 양측이 각자의 구체안을 제시하고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협상의제와 관련 남한이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의제를 제시한 반면,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와 남한내의 불온서적 출판 및 배포 금지 중지, 불법방북자의 석방, 그리고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를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관심이 정치 및 군사문제에 국한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sup>15)</sup>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는 양측간 신뢰회복과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남한측의 대화의사와 커다란 괴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14) 위의 책, p. 220.

15) 통일원,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0), p. 129.

4차 예비회담까지 회담과 관련없는 소위 협상환경 조성 의제로 일관한 북한측은 5차 회담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회담의제 절충가능성을 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회담을 진행시켰다. 남북한간에 합의한 회담대표단 구성문제에는 군사분야에 비중을 둔 북한측이 군사대표의 수를 2인으로 하도록 주장하여 절충방법으로 남북이 2인 이내에서 각자 편리한대로 선발하도록 하였고,<sup>16)</sup> 수행원의 수는 33인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회담의 명칭은 남한측의 「남북 고위당국자회담」 또는 「남북총리회담」과 북한측의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주장을 절충한 「남북고위급회담」으로 결정하였다.

의제의 내용은 7차 예비회담에 이르기까지 상호 대립된 상황에서, 끝내 양측의 주장을 취합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로 결론지었다.

## (2) 진행기 상황

양측 총리가 출석하여 개최된 남북고위급회담의 1차(1990.9.4~7, 서울)와 2차(1990.10.16~19, 평양) 본회담은 상호 제시한 합의안을 검토하는 준비적 성격이 강하였다. 1차 회담에서 북한측은 3개항의 긴급과제와 정치·군사분야에 대한 합의안만을 제시하고 교류와 협력에 관한 내용은 외면하였다.<sup>17)</sup> 2차 회담에서 북한은

16) 북한측은 대표단에 포함시킬 군사대표의 수가 회담의 정치군사적 성격을 결정짓는 문제로 간주하고, 그 수를 2인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통일원, 「남북대화 사료집」, 제5권 (서울: 통일원, 1994), 참조

17) 북한이 제안한 3개항의 긴급과제 내용은 유엔가입문제, 팀스피리트 훈

남북한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북한의 제안에는 1차 회담에서의 남한측 주장을 수용하여 정치·군사 문제만이 아닌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의 실현방안을 포함시키고 있다.<sup>18)</sup> 한편 북한은 同제안을 통해 정치대결, 군사대결,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모두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괄합의 동시 집행’의 원칙에 따르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3차 회담에서는 남북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주요쟁점이 되었다. 북한측은 회담과정에서 「베를린 범민족연합 결성」 참가와 관련한 구속자 석방문제를 거론하고, 한국의 외세의존적 자세를 비판하는 등 회담 외적 논쟁점을 제기하여 고위급회담의 초점을 흐리는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였다.<sup>19)</sup> 특히 3차 회담을 위한 연락관접촉에서는 「베를린 범민족연합 결성」 참가자들의 구속문제를 거론하면서, 회담참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회담의 진행여부가 상호관계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정치적 선택에 달려있음을 남한측에 간접적으로 확인시켰다.

1991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4차 회담은 남한의 걸프전 대비 경계태세와 팀스피리트 훈련 계속을 이유로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하였다. 회담을 중단시킨 북한측은 회담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조건에는 보안법 철폐, 불법방북자의 석방, 팀스피리트 훈련

---

련문제, 방북구속자 석방문제였다. 통일원, 「남북회담 추진경과(1)」(서울: 통일원, 1993), p. 6.

18) 위의 책, pp. 11~14.

19) 통일원, 「남북대화」, 제52호(서울: 통일원, 1991), p. 22.

중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북한은 8월로 연기되어 개최될 예정이었던 4차 회담을 소련의 쿠데타 발생 이후 남한사회에 콜레라 발생을 이유로 다시 연기하기도 하였다.

4차 회담 재개를 위한 세차레의 남북한간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측은 '불가침선언'과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 2개의 문건을 본회담에서 다루도록 하되 불가침선언 합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남한측 제안인 기본합의서와 3통합의서는 거부하였다. 특히 북한은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본회담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남한의 주장을 거부하고, 원칙적·방향적·선언적인 합의서만을 본회담에서 채택하고 실천적 사항들은 분과위원회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결국 평양에서의 4차 본회담은 남북한간 합의서의 형식, 명칭, 구성체계 등을 합의하고 다음차레의 회담을 합의하는 선에서 타협되었다.

4차 회담(1991.10.22~24)에서 북한은 원칙적으로나마 합의서 구성을 남한과 타협하였는데, 이 사실은 논쟁과정만을 유지했던 1~3차 회담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의 자세를 진일보시킨 것이었다.<sup>20)</sup> 한편 북한은 4차 회담에서 당시까지 남북한 사이에 토의된 내용에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채택을 추가 제의하여 남한의 입장을 점검해 보기도 하였다.

서울에서 개최된 5차 회담(1991.12.10~13)에서 남북한은 「남북

20) 당시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주변환경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주요한 환경변화 내용으로는 남북한의 유엔가입에 따른 북한의 대서방 관계개선 필요성이 증대된 점과 일방적인 북한편향 자세로부터 남북한간 관계개선 지지로 대남태도를 완화시킨 중국의 한반도정책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채택과정은 남북한간 제시된 합의서 수정안을 대상으로 쌍방이 절충 가능한 부분 중심으로 합의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합의서 논의과정에서 북한측은 여전히 남한에 대해 외세의존적 자세 포기와 군축 단행을 요구하며 그들의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밝힘으로써, 남한과의 합의서 채택이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5차회담에서 증시된 쟁점의 하나는 핵문제로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및 남한의 남북한 상호사찰 제의를 거부하는 한편, 남한지역내 전술핵무기의 완전철폐를 확인받을 것을 남한정부에 요구하였다. 따라서 남북 쌍방간에는 논쟁점에 대한 절충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비핵화 공동선언문제에 대한 논의는 추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동년 12월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한측이 주장하는 남북한 상호사찰을 위해서는 비핵화공동선언을 위한 별도의 이행합의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남한의 사찰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나섰으며,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는 사찰규정 자체의 토의조차 회피함으로써 상호사찰 실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6차 남북고위급회담은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는 바, 남북간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부속기구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회였다. 그러나 6차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에 필

요한 북한측의 합의서(안)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남북간 회담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6차회담에서의 남북한간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7차 및 8차회담에서 북한은 남한과의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 추진된 화해와 협력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합의함으로써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7차회담에서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에 합의하였는가 하면, 8차회담에서는 부속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한관계에서의 실천성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였다.

### (3) 종결기 상황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한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남한측이 일관되게 주장한 남북한간 ‘상호 핵사찰’에 대한 북한측의 거부 의사 표명과 함께 1993년 1월 일방적인 남북대화 중단 결정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에 입각하여 상호사찰을 주장하는 남한에 대하여 오히려 남한지역내의 미군 전술핵 무기 철수여부만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전면 부인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일방 당사자로 합의한 「비핵화공동선언」을 부정하는 결과로 핵문제가 북한측에 있어서 중요한 안보문제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었다.

남북대화 중단 이후 남북한간에는 고위급회담 재개 및 핵문제 해결을 위해 3차례의 특사교환 실무회의가 1993년 중 개최되었



다. 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한은 회담의 본질을 외면한 채 ‘남한의 핵전쟁 연습중지’와 북한에 적대적인 국제공조체제 포기를 주장하며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거부하였다. 한편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 남한측의 대응은 북한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명이 주된 내용을 이루었는 바, 북한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표시를 요구함으로써 남북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상황을 만들었다. 결국 남북간 갈등이 지속되고,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상호사찰은 물론 일체의 양보를 거부함으로써 특사교환 실무접촉은 3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성과없이 중단되었다.

## 2. 단계별 협상전술 사례

### 가. 준비기의 협상전술

#### (1)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거짓양보 전술:** 북한은 대남한 대화자세 선전 및 올림픽 불참 명분 마련을 목적으로 남북대화에 응하였으며, 따라서 회담성사를 위해 남한이 제시한 회담일정을 수용하는 등, 양보와 타협의 자세를 취하였다.

**시간의 효과적 이용 전술:** 북한은 회담시한을 급박하게 설정하여 남한을 조급하게 만들고,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였다.

## (2) 로잔느 체육회담

**체면유지 우선 및 타협적 대화자세 선택:** 서울올림픽 개최지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IOC가 남북회담을 제의하자 북한은 초기에는 이를 거부하여 체면을 유지하려 하였으며, 그들의 상황이 불리함을 인식한 이후 회담에 응하였다.

## (3)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체면 유지 및 회담 선제의 시도:** 이미 남한과 수차례의 체육 회담을 가진 바 있는 북한은 동회담의 성격과 한계성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먼저 회담을 제의하는 것만으로도 회담의 주도권과 대외선전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특히 회담일정을 조급하지 않도록 대회개최 시점보다 1년 9개월 앞서 제의함으로써 회담제안의 현실성을 선전할 수 있었다.

## (4) 남북고위급 회담

**바자르(Bazaar)전술:** 북한은 협상의제를 제시함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화하기를 원하는 남한의 의도를 고려하여 정치 군사 문제에 치중되는 의제만을 고집하여 남한으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려 하였다. 특히 북한은 회담초기에 본격적인 협상 의제를 언급하기 보다는 협상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협상환경문제

를 무리하게 먼저 언급하여 회담주도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화전술 결과 남북한 사이에는 군사대표의 수를 2인 이하로 한다는 모호한 결정이 합의되기도 하였다.

**One-Text Procedure 전술 및 절충과 타협의 대화태도:** 정치 군사회담을 주장한 북한은 남한과의 타협을 통해 대화의 명칭을 「북남고위급회담」으로 절충하였으며, 협상의제에서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라는 절충적 합의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이 합의가 가능한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수용해 나간 사례이다.

#### 나. 진행기의 협상전술

##### (1)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교착위협 전술:** 남한측이 최은희·신상옥 양인의 납치문제 및 버마 아웅산 사건을 언급하자 북한은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대표를 철수시켰다. 이후 북한은 동문제를 남한이 재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도록 요구하고, 그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회담을 중단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대외선전 소재 마련 시도:** 북한은 남한과의 체육회담을 통해 버마사건의 책임을 호도하려 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북한의 책

임이 없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남한이 북한과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보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남한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한이 이후 더이상 버마 사건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 (2) 로잔느 체육회담

**바자르전술:** 북한은 1차 회담에서 남한만의 올림픽개최는 부당하므로 남북한이 공동주최를 하되, 경기종목의 수를 절반으로 나누고, 개폐회식도 양측에서 동시에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남한과 IOC에 의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으나,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협상의제 제의단계에서부터 무리한 주장을 하였다.

**거짓양보전술과 새로운 의제 추가제안 전술:** 북한측은 회담진행 과정에서 요구종목 수를 줄이고 단일팀 구성 요구의 강도를 낮춤으로써 양보적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남한측이 이에 호응의 의사를 보이지자, 북한은 새로이 평양올림픽 호칭 사용요구와 별도의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토록 허가해줄 것을 IOC에 요구하였다.

**지속적인 대안제시로 회담진행유도:** 북한은 종목분할 요구와

평양대회 추진 외에 4차회담에서는 인구비례에 따른 8개종목 배분을 새로이 요구한 바 있었다. 또한 IOC가 이러한 제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이자, 이에 대응하여 종목 수에 대한 신축적 태도와 함께 대회명칭, 조직, 운영 등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타협 및 절충의 태도는 지속적으로 회담을 진행하여 그들이 세부적으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회담이의 추구자세라고 할 수 있다.

### (3)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

**회담 진행과정에서의 절차와 의제 중심적 대화태도:** 회담과정에서 북한은 정치적 내용을 배제한 의제중심적 대화를 시도하였는 바, 단일팀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남한과의 합의형식을 모색하고 있다.

**이의제기(Objections) 전술 및 바자르전술, 체면유지 중시태도:** 회담과정에서 북한은 불리한 경기력에 따른 선수 및 임원 구성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경기별로 이중적 기준을 적용시키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유리한 종목은 경쟁선발을 하고 불리한 종목은 균등배분하자는 이중적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체면을 유지하고 나아가 남한의 양보를 기대한 복합적인 회담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 (4) 남북고위급회담

**전레이용 혹은 전제조건 제시전술:** 회담에서 북한은 3개항의 긴급과제 제시와 정치군사분야에 대한 논의만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제안은 종래 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남북대화의 정치군사적 전제조건을 고수 혹은 반복하는 것이었다.

**연계전술 혹은 일반원칙 합의전술:** 회담 초기 의제 제시과정에서 북한측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남한의 주장을 수용하여 정치 및 군사 대결, 다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모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장아래 일괄합의 동시실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4차 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서는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합의서만을 본회담에서 채택하고, 실천적 사항들은 분과위원회로 이관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들은 현실적으로 남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합의 혹은 실천이 가능한 분야에서 명분상 남한의 제안에 동의해 주더라도 항상 이를 계동 혹은 견제할 수단을 확보한다는 데 관심을 둔 전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술은 회담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체면유지와 명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북한이 부분적으로 양보전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교착 및 파기 위협전술:** 3차 회담에서는 베를린 범민족연합 결

성 참가자들의 구속문제를 거론하고, 회담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회담지속을 원하는 남한을 위협하였다.

**회담재개 전제조건 제시:** 남북한간 합의한 4차 회담을 연기하고, 보안법철폐, 불법입북자 석방,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등의 회담재개조건을 다시 제시하였다.

**의제 추가제시 전술:** 북한은 4차 회담에서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채택을 추가로 제의하였다. 또한 「비핵화공동선언」 서명 과정에서도 북한은 공동선언의 별도 이행합의서 필요성을 제시하여 동선언의 효력 발생을 전제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남한의 주장인 북한 핵시설 사찰 성사 가능성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새로운 전제조치였다.

**BATNA 혹은 양보선(Reserve Price) 확보 전술:** 5차 회담에서 북한이 남북한간 「기본합의서」 채택을 논의하는 가운데 남한에 대해 외세의존적 자세포기, 군축단행 등을 요구한 사실은 북한이 갖는 양보선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즉 북한은 남한에게 「기본합의서」 채택이 북한의 대남 기본입장을 양보하는 것이 아님라는 사실을 알리려 한 것이었다.

**체면유지 태도 및 명분축적 소재 준비:** 북한은 회담의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양보함으로써 회담진행에 동조적이라는 사실을 대

내외에 나타내려 하였다. 이러한 자세는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회담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보이려는 것으로, 7차 및 8차 회담에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교환에 합의한 사실이나, 부속기구 구성과 운영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킨 사실에서 실증적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 다. 종결기의 협상전술

##### (1)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전제조건 제시:** 북한은 1차와 2차 회담의 공전책임을 남한에 돌리고, 남한이 단일팀 구성 논의에서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사과와 정치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회담재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교착위협전술:** 또한 북한은 남한이 북한의 회담재개 전제조건을 수용·해결하지 않는 한 회담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사실은 교착위협 전술로 볼 수 있다.

##### (2) 로잔느 체육회담

**거짓양보전술:** 4차 회담 이후 북한이 수정된 제안을 제시하여 요구종목 수를 줄이고 대신 주요종목 요구와 기타 회담진행에 관



련된 사항을 새로 요구한 사실은 당면문제에 대한 적은 양보를 통해 새로운 부분에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려는 전술이었다. 또한 북한측의 제안에 대해 남한이 수용을 거부함으로써 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선전을 통해 대화결렬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

**깎기(Haggling) 전술:** 북한은 요구종목 수를 줄이므로써 IOC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한편, 축구와 여자배구 등 인기종목의 할애 요청 및 대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대회명칭, 개폐회식 분할 거행, 중계권 문제 등에 북한이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남한의 협상입장을 낮추어 보려는 깎기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 (3) 북경 아시아게임 단일화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일반원칙 합의전술:** 남북한 쌍방이 단일팀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만 대회참가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통해 회담진행을 위한 일반원칙으로 삼자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남한의 대회참가를 북한의 결정에 묶어두려는 전술적 차원의 원칙합의 유도 전술이었다.

**협상의도 감추기 및 합의기피 전술:** 북한은 남한의 아시안게임 참여 봉쇄를 목적으로 회담에 임하였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

하여 회담진행에서는 상당부분 협조적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남한이 단일팀 구성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보장을 요구하자, 회담중단을 결정하고 남한의 요구는 거부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그들의 협상이익은 추구하되, 남한이 그들의 협상자세를 견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의도의 은폐나 합의기피 방법으로 봉쇄하려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 (4) 남북고위급회담

**일방요구전술:** 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에 의거하여 남북한 상호 핵사찰을 주장하는 남한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남한지역내의 미군핵무기 철수여부만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한 사실은 타협이나 절충 등 협상의 기본태도를 무시하는 전술이다.

**바자르전술:** 북한은 남한의 핵전쟁 연습중지와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제공조체제 포기 요구를 조건으로 회담진행을 거부하였는 바, 이러한 태도는 남한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적극적인 대화자세에 대한 견제조치로서 무리한 요구를 제시한 바자르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추가요구전술:** 북한은 남한이 그들의 회담재개 요구에 대해 설득을 위한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위표시 요구로 갈등을 증폭시키려 시도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협상을 진행시

킬 필요가 없는 시점이라는 판단에서 회담의 종결을 시도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

### 3. 방어적 회담에서의 협상전술 특성분석

방어적 협상의 준비기 전술에서는 협상성사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중심적 성격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협상의제의 선제의나 의제 절충안의 단계적 수용 전술 등으로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공세적 협상에서와는 다른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협상전술 중에는 부분적으로 무리한 제안이나 요구(바자르전술 등)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강화하는 일방적이고도 비타협적인 회담환경 유도전술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공세적인 전술에서와 유사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협상성사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술 선택 사례와 연계시켜 분석한다면 회담진전을 방해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며, 오히려 회담진행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진행기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협상전술 역시 대화진행과 관련된 전술이 대화진전에 장애가 되는 공세적 전술과 함께 뒤섞여 다양성을 보인다. 이러한 진행기 협상전술을 형태적으로 분류해 본다면 세 가지의 전술 사례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대화의 전제조건과 일반원칙을 연계시키려는 시도 및 대의선전소재를 확보하려는 공격적 전술 행태이다. 이러한 전술행

태는 북한이 공세적 협상에서 선택한 전술방향과 커다란 차이가 없다.

둘째로는 단계적 대안제시 전술이나, 의제중심적 대화태도 선택, 의제추가 제시, 그리고 먼저 회담을 중단하기를 꺼리는 회담 진행 동조적 전술의 선택 등으로, 이는 앞의 전술 성격과 상반된다. 특히 이러한 전술은 준비기의 전술과 비교하여 볼 때, 회담진행 및 협상의제 논의의 발전적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협상의제 전환방식에 있어서 상호 양보적 성격을 찾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로 분류할 수 있는 전술사례 群은 교착위협전술, 거짓양보 전술, 남북한간 양보를 교환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서의 이의제기 전술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전술은 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전술형태이다. 즉 북한은 대화의 전략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대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호하는 전술군이 있으며, 이는 공세적 협상과 방어적 협상의 구분없이 선택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방어적 회담의 진행기 북한 협상전술은 전술형태의 분류에 상응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바, 북한협상의 특징인 공세적 협상전형은 유지하면서도 협상단계별 진행상황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이 추진하는 방어적 협상의 종결기 전술도 대체로 상반된 두 방향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협상목적과 관련해 회담의 진행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 회담을 중단시키기 위

한 구실로 무리한 회담재개요구나 회담교착 위협 전술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회담자세는 그들의 요구와 남한의 협상자세 사이에 괴리가 큰 경우 책임회피와 책임전가를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의기피나 남한에 대한 무리한 양보요구의 행태도 부분적으로 같은 목적 하에서 사용된다.

또 다른 하나는 남한의 협상자세가 적극적인 경우 새로운 의제 추가 제의나 일반원칙 합의 시도를 통해 남한과의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점이다. 이는 협상환경 전환시도를 통해 다음단계의 협상 여지를 마련하는 한편, 북한의 체면유지와 명분 축적을 함께 모색하는 실리적 협상행태로 이해되기도 한다. 북한의 협상환경 개선 노력은 협상의도 감추기 전술이나 깎기(Haggling)전술 혹은 양보전술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방어적 회담에서 북한의 협상전술 선택 방향은 일면으로 공세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다른 일면에서는 사용되는 전술의 단계적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협상진행 과정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세적 협상에서 남북한 경쟁구도 아래 대남공세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전술선택 방향과 달리, 방어적 협상에서는 협상의 제 범주안에서 단계별로 세분화된 협상목적을 설정하여 전술을 선택·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어적 협상의 또 다른 특징은 공세적 협상에서와 달리 의제진행을 위한 실리적 대화전술과 비타협적·비협조적 공격전술이 병

행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대화진행의 전체구도에서 협상목적에 따라 실리적 측면을 중시하나, 세부 단계별로는 경쟁적 대남협상에서 효과성 제고를 위해 비타협과 비협조의 공격적 전술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방어적 협상에서 북한은 대화진행과 대남경쟁이라는 이율배반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에따라 선택되는 협상전술도 양면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Ⅵ장 북한 협상전술 평가 및 우리의 대책

### 1. 북한 협상전술 평가

북한의 공세적 협상전술은 하나의 목적하에 일관성있게 추진되는 바, 단계별로 분절없는 연결성을 갖고 있다. 즉 준비기의 전술과 진행기의 전술은 단계별 회담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대남 공세 전략 추진 차원에서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술구조는 회담의 진전과는 무관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종결기의 전술은 앞선 단계의 전술과 형태면에서 구별되는데, 이는 협상 중단 및 남한에 대한 책임전가를 목적으로 선택되는 것으로, 협상목적 차원에서 앞단계의 전술과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공세적 협상에서 북한은 협상진행을 위한 일반원칙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남한에 대해 이를 강요한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의 일반원칙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협상종결기에서 북한의 협상전술은 회담의 진행 및 중단을 대화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공세적 협상전술 선택의 단계별 구조는 회담의 진행 및 발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며, 회담외적 목적을 위해 부정적인 방향에서 일관성있게 추진되는 일련의 전술 선택구조로 이해된다.

한편 방어적 협상의 전술형태는 공세적 협상에서의 전술형태와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즉 방어적 협상에서 북한협상전술의 특징

은 각 단계별 전술이 형태적인 면에서 선후의 분절적 연계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선택의 형태적 특징은 북한이 단계별로 달리 설정하는 세부목적에 각각 부합하는 협상전술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북한이 방어적 협상에서 단계적 협상전술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계적 협상진행이 갖는 유리한 점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새로운 의제추가와 같은 단계전술을 사용하여 진행중인 협상에서 부분적으로 협상이익을 추구하되, 협상이익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는 무시하려 한다. 또한 다음 단계로 회담을 이행시키기 위해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남한은 협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새로운 의제와 요구에 직면하게 되며, 남한이 이미 결정한 양보는 북한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협상자세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만을 갖게 하며, 최대한의 협상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북한이 단계별로 협상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협상진행 상황에 대한 신속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남한은 협상의 진전과정과 관계없이 북한이 협상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나, 실질적으로 북한의 협상은 목적에 충실한 합리적 협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셋째로 북한이 선택하는 협상전술의 특징은 북한의 일방적 협상자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북한의 협상은 형태적으로는 남한



을 상대로 경쟁적 구조속에서 운영되나,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설정한 협상구조 내에서 일방적으로 운영된다.<sup>1)</sup> 따라서 협상전술도 북한의 일방적 협상목적과 부합되도록 선택되며, 남한의 대응태도가 북한 협상전술 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결국 북한의 협상전술 선택과정에서는 방어와 공세라는 전략적 입장이 의미를 갖게 되며, 단계별 세부목적이 전술선택의 중요원인이 된다. 남한의 대응과 양보는 북한의 협상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북한의 협상전술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어렵다.

이러한 북한의 협상전술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선택하는 협상전술은 협상결과와 상관없이 북한협상 목적과 연관시켜 효용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북한의 협상추진 과정에서 협상전술의 선택과 변화는 회담의 전략적 입장과 단계별 진행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 2. 우리의 대책

### 가. 기본방향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은 전략적 입장과 단계별 진행상황에 따라 전술선택의 다양성을 보여왔다. 따라서 우리의 대책

---

1) 원칙에 입각한 협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Principled Negotiation으로 명명되고 있다. Roger Fisher and William Ury, *Getting to Yes*, (New York: Penguin Books, 1984) p. 11.

<표 3> 전략적 입장과 협상 단계에 따른 북한협상전술의 변화 상관성

	공세적 회담	방어적 회담
준비기	일방적 공세에 의한 회담의 일반원칙 강요 전술	회담진행에 필요한 일반원칙 합의 유도전술 및 일방적으로 유리한 분위기 조성 전술 병행
진행기	상대방의 의제전환을 강요하는 일방적 공세전술	의제전환을 위한 상호 타협 전술 및 상대방 양보요구를 통한 단계별 공세전술 병행
종결기	협상결렬 불사양의 강경 전술	협상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협상환경 전환 시도와 합의 이행 기피에 따른 책임전가 전술 병행

도 북한의 협상전술 선택 원칙과 변화방향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협상전술 선택의 기본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북한의 대화배경과 관련, 대화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추진하는 남북대화가 대남공세전략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인가, 혹은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 협상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인가를 구별하는 것이 남북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대책기준의 하

나가 된다. 북한이 응해오는 남북대화가 공세적 회담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북한의 대화태도가 회담진전에 긍정적이지 못하리라는 점을 고려한 대화전술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대화의 필요성에 따라 남북대화에 응해올 경우, 한국의 대화전술은 북한이 보다 깊이 대화에 관련되도록 대화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고려해야 할 기본방향은 대화의 단계적 진행상황과 적절한 대응전술간 연계 필요성이다. 북한의 대화가 단계별로 운영되므로 대화의 지속성 유지는 가능하나 대화의 진전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리의 대화전술도 단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 특정한 협상이익을 위한 방어적 대화를 추진하는 경우 대화의 중단이나 결렬을 우려하여 단계적 양보가 요구되기도 하며, 이에 우리의 대책은 양보범위를 세분화하여 회담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되 전체적인 양보가능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세적 회담에서 우리의 대화전술은 단계성을 고려하기에 앞서 우리의 회담원칙을 먼저 설정하고, 회담의 진전문제는 무시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다룰 수 있다.

셋째로 북한이 대화목적에 따른 일방적 '협상이의 중심의 대화'(Principled Negotiation)를 추진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우리의 대화전술도 상황에 적응하여 협상위치를 바꾸는 '상황중심의 협상'(Positional Negotiation)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남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대화를 추진하며, 남한의 협상입장을 고려하여 그들의 협상목적을

수정하거나 양보하는 경우는 없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협상이익을 희생하는 협상상황 중심의 대화를 종종 수행해 왔으나, 이러한 자세가 북한의 협상이익 중심의 일방적 대화전략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sup>2)</sup> 따라서 향후 대화에서는 협상배경과 단계별 협상진행 과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협상이익 중시원칙을 또 하나의 대화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 나. 세부방안

##### (1) 공세적 협상에서의 대응방안

##### (가) 준비기의 대응방안

공세적 협상의 준비기에 마련되어야 할 우리의 대응방안은 대화의 기본방향과 준비기 북한전술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준비기의 북한협상 특징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협상의제와 관련이 적은 문제들을 제의하거나 논의하도록 하여 회담진전을 방해하거나 둘째, 일방적으로 일반원칙 합의를 강요하며 셋째로 과격한 방법으로 회담분위기를 그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북한협상 자세에 대응하여

2) 김도태, 「남북한 협상행태 비교연구」 pp. 124~125.

준비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술 사례를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아래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전술선택 방향을 고려하여, 단순히 상징성을 갖는 대표적 전술사례만을 간단히 제시하도록 한다).

- 본질적인 회담의제를 냉정히 이해하고 북한을 설득함
- 조급한 반응을 자제하는 인내심과 함께 단호한 한국의 태도를 표출함
-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입장과 태도를 홍보하여 북한의 의도를 차단함
- 한국의 협상태도와 위치를 북한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의 의도가 적절하지 못함을 인식시키도록 함
- 한국의 원칙대안을 준비, 이를 북한의 제안과 비교 제시할 것
- 한국의 양보가능성을 분명히 하여 양보 불가능 사항을 명백히 제시함
- 상황 맞대응(Tit-for-Tat) 전술
- 협상목표와 실현가능성을 연결하여 확고한 회담자세 견지
- 명시적인 방향으로의 인내한계 제시

#### (나) 진행기의 대응방안

공세적 협상의 진행기에 북한이 보여주는 협상전술 특징은 첫째, 의제전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남한의 양보를 요구하거나 둘째, 협상진전에 무관심을 표출하고 셋째로 협상을 수단으로 남한

의 능력과 태도를 점검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북한의 진행기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의 대응전술 사례를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협상구도에서 한국의 협상목적과 자세를 분명하게 함
- 양보가능선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북한의 양보를 요구
- 북한이 협상진전에 무관심한 경우 조급한 반응을 자제하고 북한의 의도를 고려한 대응방안 수립
- 지연전술을 사용
- 인내심을 가질것
- 북한의 공세에 대해 보복조치에 이르는 대응수단 강구

#### (다) 종결기의 대응방안

종결기에서 북한이 협상을 중단 혹은 파기할 자세를 보이는 경우 대응전술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 회담진행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것
- 북한의 제안을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만 논의하고, 불가능한 경우 회담의 중단 수용을 불사함
- 회담결렬의 책임을 분명히하고, 이를 대내외 홍보와 연계함
- 내부 언론의 비협조 및 압력을 경계함

## (2) 방어적 협상에서의 대응방안

### (가) 준비기의 대응방안

방어적 회담에서 준비기의 북한협상전술은 유리한 협상분위기 조성 및 협상규칙의 일방적 강요 전술 사용과 대화성사를 위한 의제중심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방안으로도 양면적 협상전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세적 회담에서의 준비기 대응전술과 북한을 회담진행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전술을 병행시켜 사용한다.

북한의 회담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전술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모호한 의제에 대해 정확한 용어 사용과 상대의사 확인 과정을 들
- 협상상대인 북한의 반응을 파악·고려
- 북한의 의제 및 의사일정을 정확히 검토하고, 이를 우리의 의제에 반영
- 우리의 제안 관철에 필요한 논리성 개발
- 북한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제한적 지연전술 사용

## (나) 진행기의 대응방안

방어적 회담에서 진행기의 북한협상 전술은 일반원칙 합의를 대화전제조건과 연계시키려는 시도와 함께, 단계적 대안제시 및 의제중심적 대화 자세를 통한 회담진행 동조적 태도 선택, 그리고 남한의 양보를 요구하는 전술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시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한편으로는 경쟁적 대화전술 사용 사례를 찾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전술도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야 하며, 북한의 의제중심적 대화전술에 대응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전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북한의 경쟁적 대화 태도를 고려하여 공세적 전술에서 사용되는 전술을 참조해야 할 것이나,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예시하지 않기로 한다).

- 과거의 회담사례 및 전례를 연구하여 대표에게 숙지시킴
- 회담진행과정 및 일정 想定
- 확고한 회담자세 견지
- 협상목표와 논의 사항을 명확히 설정
- 북한의 대화거부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순차적 협상안 제시전술 사용
- 의제의 세분화와 대화의 다원화 시도
- 우리 제안의 논리성 제고
- 북한의 반응 파악 및 우리의 협상대안에 반영
- 합의도출과 이후의 이행과정에 대한 관리철저



### (다) 종결기의 대응방안

종결기의 북한협상전술은 한편으로 무리한 회담재개요구나 교착위협을 통해 회담을 중단시키려는 행태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적극적인 자세에 따라 새로운 의제추가 등의 전술로 회담의 재개가능성을 남겨두는 특징을 갖는다. 북한의 이러한 자세는 협상재개 여지를 남김으로써 체면유지와 명분축적에도 부분적 목적을 두는 실리적 협상행태이다.

이러한 북한의 종결기 협상전술에 대응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협상전술 사례는 다음과 같다.(북한의 전술 사례 중 공세적 전술의 종결기와 병행되는 대응방안은 제외한다).

- 양보가능선을 확실히 하여 북한의 오해를 없애도록 함
- 북한의 제안에 대해 조급한 반응을 자제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대화의제의 세분화 및 대화 가능의제의 순차 확정 후 제시

## 제Ⅷ장 결 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의 협상전술은 회담에 임하는 전략적 입장과 회담진행에 따른 단계별 상황에 의해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전술의 선택과 변화의 방향은 북한 협상행태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의 대책도 이러한 북한협상 전술선택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따라 강구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단히 북한의 협상전술 선택의 기본원칙과 변화 방향에 대해 재검토해 보기로 한다.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적 입장은 대화환경의 차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었다. 구분되는 전략적 입장의 한 측면은 북한이 협상을 대남공세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여 남한이 혼란의 시기에 직면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 대화에 응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된 남북협상 과정은 북한의 일방적이고 비타협적인 협상자세가 원인이 되어 협상진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또한 북한의 협상전술은 비타협적인 협상 자세와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선택되었는 바, 비협조, 중단 및 결렬, 책임전가 등 협상진전에 부정적인 공격적 전술이 주로 선택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협상의 필요성에 따라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한 경우는 협상중심적 대화자세에 따른 의제중심적 협상전술이 선택되고 있다. 이러한 전술 운영은 북한이 협상진행 과정으로부터 협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대화성사

및 진행과정이 북한에게 의미를 갖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이러한 협상에는 한반도 분단에 따라 결정되어 온 갈등구조하의 대남공세 전술이 함께 사용되는 바, 이는 협상본질에 따른 협상의 추구목적과 함께 대남경쟁이라는 또 하나의 목적이 함께 내포되어 나타나는 결과였다.

한편 북한의 협상전술은 전략적인 목적외에도 협상진행의 단계별 상황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계별 변화의 경우에도 전략적 입장에 따른 구별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세적 협상에서 단계별로 나타나는 전술의 변화는 방어적 회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분명하지 못하다. 즉 공세적 협상에서 준비기와 진행기의 협상전술은 일관된 협상목적에 의해 상호 내용적 차이와 형태적 차이가 크지 않으며, 종결기의 전술 역시 내용적으로 회담중단과 결렬에 초점이 두어지므로 준비기나 진행기의 전술에 비하여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방어적 협상에서는 단계별로 형태적, 내용적 변화를 볼 수 있는 바, 단계적 전술의 선택은 단계별로 설정되는 세부적 협상목표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준비기의 협상전술은 협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전술이 채택되는 데 비해, 진행기의 전술은 협상의제 중심의 대화전술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종결기의 전술은 합의도출과 회담재개 가능성을 고려한 전술이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별 전술 운영에 있어서도 북한의 선택은 대화중단과 결렬을 불사하는 공격적 측면이 병행되고 있는데, 이러

한 자세는 북한이 단계별로 불연속적인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은 대화를 통한 협상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단계별 대화과정에서 남한에 대한 경쟁적 대결을 통한 일방적 협상이익을 설정·추구한 결과로 합의기피나 협상결렬 및 비협조·비타협의 이율배반적 전술선택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협상전술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선택되며, 단계별 진행과정에서도 전술선택의 변화를 보인다. 특히 공세적 협상의 경우 고정적인 대남공세 목적에 따라 전술의 변화가 적으나, 방어적인 회담에서는 세부적인 단계별 목적에 따라 전술변화의 폭이 커지게 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또한 방어적 협상에서는 한반도의 대결적 분단체계 아래서 제한적 변화만을 보이는 바, 이는 대남경쟁 구조가 타협과 절충이라는 본질적 협상구조를 제한하는 데서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인덕. 「북한의 남북대화 전략전술 평가 및 전망」. 서울: 통일원, 1990.
- 국토통일원. 「남북 국회회담 관련 북한논조」. 서울: 국토통일원, 1985.
- . 「남북대화 백서」.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 「남북 대화와 협상전술」. 서울: 국토통일원, 1983.
- . 「남북대화 추진현황: 1988~1990.2」. 서울: 국토통일원, 1990.
- . 「남북적십자 회담 자료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5.
- . 「남북한관계 협상경험 사례」. 서울: 국토통일원, 1987.
- .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 비교(II): 1988~1990.2」. 서울: 국토통일원, 1990.
- . 「민주통일론」.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 「쌍방 주요발언 대비」. 서울: 국토통일원, 1989.
- 김관봉 외. 「미·소군축과 동북아」. 서울: 평화연구소, 1990.
- 김도태. 「남북한 협상행태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상준. 「국제정치이론 II」. 서울: 삼영사, 1982.
- 김준엽. 「남북협상과 국공협상의 비교에 의한 우리의 대책」. 서울: 국토통일원, 1972.
- 김준희. 「좌우협상사례연구: 핀란드 경우」. 서울: 국토통일원, 1974.
- 남정문. 「대공협상 전략전술 연구」. 서울: 통일원, 1980
- 박동운. 「80년대의 남북대화 추진방안」. 서울: 통일원, 1982.
- 박일성. 「공산주의 협상전술」. 서울: 국토통일원, 1983.
- . 「남북한 정치협상 대처방안」. 서울: 국토통일원, 1977.
- 양영식. 「북한의 협상전술」. 서울: 국토통일원, 1990.
- 유원동.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서울: 통일원, 1988.
- 이상우. 「남북대화 발언주제 변천에 나타난 북한의 협상전략」. 서울: 국토통일원, 1976.
- 전 용. 「외교정책론」. 서울: 법문사, 1989.
- 정석홍. 「국공협상」. 해외협상경험사례. 서울: 국토통일원, 1987.
- 정종문. 「월남협상사례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74.
- 조석준·김광웅. 「남북협상 요원의 양성방안 연구」. 서울: 통일원, 1973.
- 조영규. 「북한의 협상기교에 관한 연구: 남북적십자회담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원, 1979.
- 국토통일원. 「공산주의 협상전술」. 서울: 국토통일원, 1983.

- 국토통일원. 「쌍방 주요 주장에 대한 비교표」. 서울: 국토통일원, 1992.
- . 「쌍방 주요 환담내용」. 서울: 국토통일원, 1993.
- 통일원. 「남북대화」, 52호. 서울: 통일원, 1991.
- 통일원. 「남북대화」, 53호. 서울: 통일원, 1991.
- . 「남북대화」, 55호. 서울: 통일원, 1992.
- . 「남북대화」, 56호. 서울: 통일원, 1992.
- . 「남북대화」, 57호. 서울: 통일원, 1994.
- . 「남북대화 사료집」, 제4권. 서울: 통일원, 1994.
- . 「남북대화 사료집」, 제5권. 서울: 통일원, 1994.
- . 「남북대화 사료집」, 제6권. 서울: 통일원, 1994.
- . 「남북대화 사료집」, 제7권. 서울: 통일원, 1994.
- . 「남북체육회담 결과보고(종합)」. 서울: 통일원, 1993.
- .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 비교: 1988~1991.3」. 서울: 통일원, 1991.
- . 「남북회담 추진경과(I)」. 서울: 통일원, 1993.
- . 「월맹의 대미협상전략」. 서울: 통일원, 1978.
- .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0.
- .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2.
- .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3.
- 한승수. 「남북접촉의 유형정립」. 서울: 국토통일원, 1973.
- 허만호 외. 「북한의 군사협상전략과 기술분석 및 대비방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993.

- Aronson, S. *Conflict and Bargaining in the Middle East*.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 Axelord, R. *Conflict of Interest*. Chicago: Markham, 1970.
- .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 Bales, R.F. *Interaction Process Analysis: A Method for Study of Small Groups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1950.
- Barcharch, S.B and Lawler, E.J. *Bargaining: Power, Tactics, and Outcomes*. San Francisco: Jossey-Bass, 1981.
- Bartos, Otomar.J. *Process and Outcome of Negoti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 Brady, Linda P. *The Politics of Negotiation*.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1.
- Carter, April. *Success and Failure in Arms Control Negotiations*, SIPRI.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Churchaman, David. *Negotiation Tactics*. 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3.
- Dean, A. *Test Ban and Disarmament: The Path of Negotiation*. New York: Harper & Row, 1966.
- Druckman, Daniel. *Negotiation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77.
- Fisher, Roger and Ury, William. *Getting to Yes*. New York: Penguin Books, 1983.



- Habeeb, William Mark. *Power and Tactic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 Ikle, F.C. *How Nations Negotiate*. 이영일·이형래 공역. 「협상의 전략」. 서울: 한얼문고, 1972.
- Joy, C.Turner. *How Communists Negotiate*.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역). 「공산측의 협상태도」. 서울: 통일원, 1993.
- Kissinger, H. *White House Year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Kriesberg, Louis. *International Conflict Resolu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 Lall, Arthur. *Modern International Negotiation: Principles and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6.
- Lewicki, Roy J and Litterer, Joseph A. *Negotiation*, Homewood, Illinois: Irwin, 1985.
- Luttwak, Edward N. *Strategy*. Cambridge, Massachusetts: of Havard University Press, 1987.
- Rangarajan, L.N. *The Limitation of Conflict: A Theory of Bargaining and Negotiation*. New York: St. Martin Press, 1985.
- Samelson, Louis J. *Soviet and Chinese Negotiating Behavior: The Western View*.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6.
- Schelling, Thomas C. *The Strategy of Conflict*, Cambridge. Massachusetts: Havard University Press, 1980.

Wall Jr, James A. *Negotiations: Theory and Practice*. Glenview, Illinois: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5.

Kaufman, W. *The McNamara Strategy*. New York: Haper, 1964.

Zartman, I William. *The Negotiation Process, California*.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8.

Zartman, I William and Berman, Maureen R. *The Practical Negotiato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 2. 논 문

곽태환. “남북대화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이론적 모형.”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세미나 보고서. 83-08, 1983.

———. “남북한 대화와 협상전략.”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권 1호, 1987.

김도태. “탈냉전기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성과 변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광복50주년 기념 통일문제 대토론회 제출논문, 1995.

김용호. “탈냉전 시대의 북한 협상스타일과 행태분석: 남북기본합의서와 핵관련 협상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1993.

김용희. “북한의 협상전략·전술에 관한 연구.” 『민족통일의 모색』. 통일가족논문집 제2집, 서울: 국토통일원, 1990.

- 문광건. “북한식 협상행태의 변화전망과 대북 협상 원칙.” 「국방  
논집」 제26호, 1994.
- 이달곤. “군축이론에 입각한 남북한 군축협상 대안연구.” 통일문  
제연구. 제1권 1호, 1989.
- 정은성. “협상론의 관점에서 본 남북대화.” '93 북한/통일연구 논  
문집(1), 1993.
- . “협상의 기본개념.” 미발표논문.
- . “협상의 기본전략.” 미발표논문.
- . “협상의 기본전술.” 미발표논문.
- 제성호·김도태. “핵관련 북한의 협상전략전술 분석.” 민족통일연  
구원 통일정세분석보고, 94-06, 1994.
- 한배호. “공산주의자와의 협상과 남북대화.” 남북조절위원회. 남  
북공동선명발표 7주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79.
- Aumann, R. J. and Maschler, M. “The Bargaining Set for  
Cooperative Games.” M. Dresher, L. S. Shapley, and A.W.  
Tucker(eds.) *Annals of Mathematics Studies*. vol. 52: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 Bazerman, Max H. “Negotiator Judge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27, no. 2 (November/December, 1983).
- Bhupendra, Jasani. “The Military Use of Outer Space.” SIPRI, *World  
Armaments and Disarmament: SIPRI Yearbook 1984*. London  
and Philadelphia: Taylor & Francis, 1984.

- Druckman, Daniel. "Alternative Models of Responsivenes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4, no. 2 (June, 1990).
- Fisher, Roger. "Negotiating Power."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27, no. 2 (November/December, 1983).
- Frey, Robert L and Adams, J. Stacy. "The Negotiator's Dilemma: Simultaneous In-Group and Out-Group Conflic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8, no. 4 (July, 1972).
- Garthoff, R. L. "Negotiating with the Russians: some lessons from SALT." *International Security*, vol. 1, no. 4 (spring, 1977).
- Hammer, W. Clay. "Effects of Bargaining Strategy And Pressure to Reach Agreement in A Stalemated Nego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vol. 30, no. 4, 1974.
- Johnson, Douglas F and Tullar, William L. "Style of third Party Intervention, Face Saving and Bargaining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8, no. 4, July 1972.
- McGillicuddy, Neil B., Welton, Gary L and Pruitt, Dean G. "Third-Party Intervention: A Field Experiment Comparing Three Different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3, no. 1, 1987.
- Pruitt, D. "Strategy in Negotiation." Kremenjuk, Victor A. *International Negotiation*. California: Jossey-Bass Inc., Publishers, 1991.

- Pruitt, Dean G. "Strategic Choice in Negoti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27, no. 2 (November/December, 1983).
- Raiffa, Howard. "Mediation of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27, no. 2 (November/December, 1983).
- Rubin, Jeffrey Z. "Negoti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27, no. 2 (November/December, 1983).
- Solomon, Richard H. "Chinese Political Negotiating Behavior: A Briefing Analysis." *The Rand Publication Series R-3295*. Washington D.C.: Rand Publication, 1985.

빈 면

## ◎ 發刊資料目錄 案內 ◎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제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北韓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 外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日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화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연구  
- 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研究報告書 95-13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년 12월 일  
發行日 1995년 12월 일

---